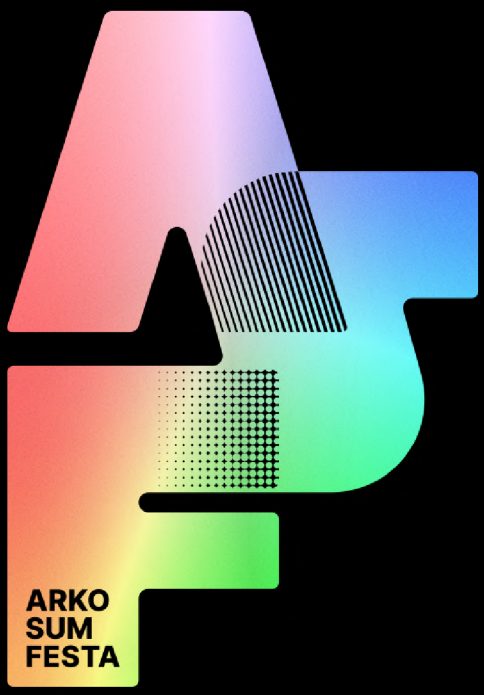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백서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백서

목 차

I. 사업 개요

1.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개요 ····· 06
2. 추진 체계 ····· 08
3. 참여 축제 구성 및 결과 ····· 10

II. 참여 축제 (장르별)

1. 연극/뮤지컬 축제 ····· 14
2. 무용 축제 ····· 26
3. 음악 축제 ····· 48
4. 전통예술 축제 ····· 54

III. 통합 홍보

1. 추진 개요 및 성과 ····· 62
2. 통합 브랜딩 ····· 66
3. 통합홍보 행사 ····· 67
4. 언론 홍보 ····· 74
5. 온라인 홍보 ····· 84
6. 서포터즈 운영 ····· 89
7. 옥외 광고 ····· 94

I

사업개요

1.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개요 …… 06
1-1. 기획 의도
1-2. 추진 방향
1-3. 행사 개요

2. 추진 체계 …… 08
2-1. 추진 일정
2-2. 조직 구성

3. 참여 축제 구성 및 결과 …… 10

I. 사업 개요

1.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개요

1-1. 기획 의도

세상의 모든 공연 축제를 하나로 연결하다!

세상의 모든 공연 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ARKO SUM FESTA, ASF)는
기초공연예술축제 통합 브랜드입니다.

아르코(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선정된 축제들이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17개 공연예술축제가 함께하여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성과 오랜 시간 관객과 성장해 온 전통성,
민간의 자율적인 기획으로 전해지는 생동감과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관객과 예술가, 국내외 교류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아르코 썸 페스타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축제들이
세계를 넘나들며 더 많은 관객을 만나 문화예술로
풍성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1-2. 추진 방향

1) 통합 브랜드 기반 인지도 제고

- 축제 통합 브랜드 런칭을 통해 개별 행사를 하나의 대형 문화 축제로 인식하도록 포지셔닝
- 로고·키비주얼·홈페이지 등 시각 아이덴티티의 통일 운영을 통한 규모감과 신뢰도 강화

2) 공연예술 간 연결을 통한 확장성 확보

- 축제 간 교류 구조 및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통한 예술적 시너지 창출
- 장르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관객의 축제 향유 폭 확대

3) 개별 축제 정체성 기반 홍보 전략

- 각 축제의 고유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홍보 캠페인 운영
- 축제별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콘텐츠 및 참여형 이벤트 기획

1-3. 행사 개요

행사명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ARKO SUM FESTA, ASF)
부제	세상의 모든 공연 축제
성격	기초공연예술축제 통합 브랜드
기간	2025년 7월 ~ 9월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거제, 강원, 세종, 청주, 대전 등 대한민국 전역
참여 축제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총 17개 공연예술축제
참여 단체 (가나다 순)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주)극단민들레, 더하우스콘서트, *(사)대한무용협회, 사단법인 문화문, 문화발전소 열터, 부산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사)세종솔로이스츠, 아이엔지댄스코리아, (사)예술공장 두레, 젊은음악인의 모임, (사)창무예술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텐스푼,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춤협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주관: (사)대한무용협회, (사)한국춤협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푸른·늘푸른축제 주관: (사)한국연극협회
참여관객수	총 63,9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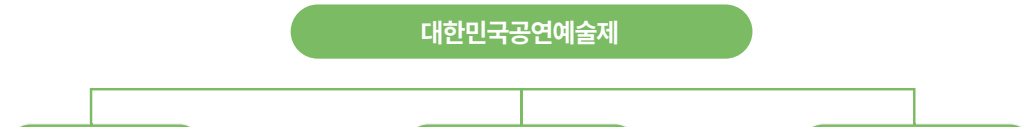
I. 사업 개요

2. 추진 체계

2-1. 추진 일정

일정	추진 계획	주요내용
2025. 3.	조직구성	협의체 간담회 추진 / 조직위 회의 사무국 구성
2025. 4.	추진방향 수립	네이밍 확정 /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회 진행
2025. 5.	기본계획 수립 홍보 착수	키비주얼 제작 / 홈페이지 개발 / 서포터즈 모집 SNS 채널 개설 및 오픈 / 협력사 구성 / 공간 대관
2025. 6.	실행계획 수립 기자간담회 진행 홍보 실행	극장 스탭회의 / 기자간담회 진행 서포터즈 선발 및 운영 / 홈페이지 오픈 홍보영상 공개 / 사전행사 관객 모집 보도자료 1차 배포 / 온라인 홍보 본격 진행
2025. 7.	사전행사 실행 축제 방문캠페인	사전행사(프리뷰 위크) 운영 / 기획기사 운영 보도자료 추가 배포 / 7월 축제 방문캠페인 진행 7월 축제 바이럴 홍보 운영 / 옥외광고 진행
2025. 8.~9.	축제 홍보	8~9월 축제 방문캠페인 진행 8~9월 축제 바이럴 홍보 운영 시기별 보도자료 배포 / 서포터즈 해단식 서포터즈 및 참여단체 설문조사
2025. 10.	성과 정리 및 결과보고	성과 기획기사 / 성과분석 워크숍 / 결과보고

2-2. 조직 구성





3. 축제 구성 및 참여 결과

장르	축제명	단체	기간	장소	참여 관객수
연극/뮤지컬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사)한국연극협회	2025. 7. 5.(토) ~ 7. 27.(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등	8,040명
연극/뮤지컬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2025. 7. 29.(화) ~ 8. 5.(화)	아르코꿈밭극장	638명
연극/뮤지컬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주)극단민들레	2025. 7. 30.(수) ~ 8. 3.(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민들레연극마을	2,505명
연극/뮤지컬	푸른 · 늘푸른- 늘푸른연극제	(사)한국연극협회	2025. 7. 30.(수) ~ 8. 17.(일)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 &서울씨어터202	2,357명
연극/뮤지컬	푸른 · 늘푸른- 대한민국청소년 연극제 밀양	(사)한국연극협회	2025. 8. 1.(금) ~ 8. 12.(화)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등 밀양시 관내	2,168명
연극/뮤지컬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	2025. 9. 5.(금) ~ 9. 7.(일)	광명시민운동장 일원	10,388명
무용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in Korea	아이엔지댄스 코리아	**무용축제** 2025. 7. 1.(화) ~ 7. 6.(일) **무용영화제** 2025. 7. 15.(화) ~ 7. 27.(일)	성남아트리움대극장, M극장, 아츠인탱크 온라인상영관	8,920명
무용	부산 발레페스티벌	부산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2025. 7. 24.(목) ~ 7. 26.(토)	부산 영도문화예술회관	585명
무용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국제공연예술 프로젝트	**거제** 2025. 7. 30.(수) **서울** 2025. 8. 2.(토) ~ 8. 3.(일)	**거제** 거제문화예술회관 **서울** 나루아트센터	1,131명
무용	춘천공연예술제	사단법인 텐스푼	2025. 8. 12.(화) ~ 8. 16.(토)	축제극장몸짓, 성암교회, 담작은도서관	625명

장르	축제명	단체	기간	장소	참여 관객수
무용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사)창무예술원	2025. 8. 22.(금) ~ 8. 30.(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포스트 극장, 세종 예술의 전당	2,510명
무용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전국무용제 사전축제	(사)대한무용협회	2025. 8. 30.(토), 9. 5.(금)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시립미술관 대강당	706명
무용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안무가 매칭 프로젝트 생생 춤 페스티벌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협회	2025. 9. 3.(수) ~ 9. 6.(토)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2,500명
무용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신진무용예술가 육성프로젝트 '코리아국제 현대무용콩쿠르'	(사)대한무용협회	2025. 7. 5.(토), 9. 21.(일) ~ 9. 25.(목)	영등포아트홀, 천안예술의전당 등	2,537명
무용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춤&판 고무신춤축제	(사)한국춤협회	**춤&판** 2025. 9 .4.(목) ~ 9. 6.(토) **고무신춤축제** 2025. 9. 24.(수) ~ 9. 25.(목)	서울남산국악당,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등	1,557명
무용	대한민국무용대축제- 대한민국무용대상	(사)대한무용협회	2025. 9. 25.(목), 12. 11.(목)	천안흥타령춤축제 주무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등	4,049명
음악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젊은음악인의 모임	2025. 6. 25.(수) ~ 6. 27.(금)	대구콘서트하우스	1,238명
음악	줄라이 페스티벌	더하우스콘서트	2025. 7. 1.(화) ~ 7. 31.(목)	예술가의집, 함안문예회관, 영도문예회관 등	2,231명
음악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	(사)세종솔로이스츠	2025. 8. 22.(목) ~ 9. 5.(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	4,617명
전통예술	대한민국대학국악제	사단법인 문화문	2025. 8. 14.(목)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	600명
전통예술	생생우리음악축제	문화발전소 열터	2025. 8. 22.(금) ~ 8. 24.(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대 (카페, 도서관 등 문화거점공간)	2,510명
전통예술	농촌우수마당극 큰잔치	(사)예술공장 두레	2025. 8. 29.(금) ~ 8. 31.(일)	청주 초정행궁 일원	1,500명

II

참여 축제

1. 연극/뮤지컬 축제 14

2. 무용 축제 26

3. 음악 축제 48

4. 전통예술 축제 54

II. 참여 축제 (장르별)

1. 연극/뮤지컬 축제

1-1.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축제명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영문명	Korea Theater Festival in Incheon
기간	2025. 7. 5.(토) ~ 7. 27.(일)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 상상플랫폼, 청라블루노바홀, 문학시어터,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학산소극장, 가정생활문화센터 공연장, 인천아트플랫폼, 신포아트홀, 다락소극장 등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사)한국연극협회 /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회
소개	**1983년 시작된 국내 최古·최大 규모의 전국 연극축제** 전국 순회 개최를 통해 지역 연극의 균형 발전과 창작 활성화를 도모해 온 대한민국 대표 연극제. 2005년 이후 해외 초청공연과 국제 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제43회 인천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대표 연극축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함.
기획 의도	•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기조로 인천을 대한민국 연극의 중심 거점으로 확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 • 'All ways INCHEON!' 슬로건 아래 전국 연극인의 집결과 교류를 통해 연극 생태계의 연결과 확산을 도모함. • 본선 경연 '입항-벽 없는 무대(Off the Wall)'를 통해 새로운 연극 형식과 열린 무대를 제안함. • 시민·청년·국제 교류를 아우르는 복합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는 열린 축제를 구현함.
주요 운영 내용	• 개막식 [개항] 및 폐막식·시상식 [출항] •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 극단 본선 경연 [입항] • 인천 크로스 떼아뜨르 페스타(소극장·민간극장 연계 교류 프로그램) • 젊은 연극인 네트워킹 페스티벌 '돌풍' • 한국–북마케도니아 합동공연 및 인천국제연극포럼 • 제4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등대' • 연극인 크로키전, 부대공연, 연극인 100인 토론회 등
참여 단체	본선 경연 16개 극단, 시민연극단체 8개 팀, 크로스 떼아뜨르 페스타 6개 단체 등 전국·시민·국제 교류 단체 다수 참여
관객 성과	총 8,040명
정량지표	진행 23일 / 공연 갯수 49개 / 총 공연 횟수 5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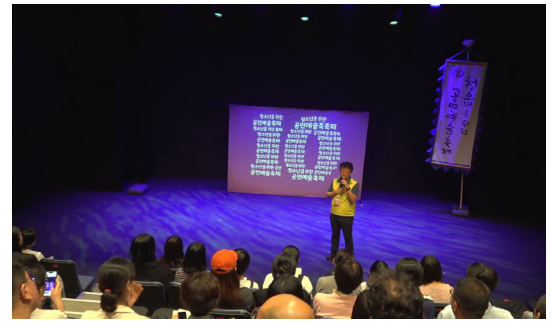


1. 연극/뮤지컬 축제

1-2.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축제명	제10회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영문명	Performing Arts Festival for Youth
기간	2025. 7. 29.(화) ~ 8. 5.(화) (본행사 일정 기준)
장소	아르코꿈밭극장(현장) + 청공축제 유튜브 채널(온라인 송출/연계)
주최·주관	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소개	**국내를 대표하는 청소년대상 공연예술축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며, 공연을 통해 삶과 세상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장. 연극·뮤지컬·낭독극·워크숍·토크쇼 등 온·오프라인 병행구성. 2024년 기준 10주년을 맞이함.
기획 의도	• 청소년이 단순히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청소년 중심의 축제 모델을 확립함. • 지역 우수 팀을 발굴하고 청소년 공연예술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예술 인력의 기반을 다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주요 운영 내용	• **경연 및 초청 세션 운영**: 공식 참가작 5팀의 경연 공연과 전년도 대상팀 <작은방>의 초청 공연을 통해 수준 높은 청소년 연극의 정수를 선보임. • **장르적 실험과 시도**: 청소년 낭독공연 <스프레이> 및 개막 특별 공연을 통해 공연 양식의 다양성을 확보함. • **학술 담론 형성**: 심포지엄("청공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및 청소년 평가단 온라인 토크쇼, 참가팀 합평회 등을 통해 비평적 시각을 공유함.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축제**: 아르코꿈밭극장 현장 공연과 청공축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송출로 접근성을 극대화함.
참여 단체	자픈커넥션, 극단 파수꾼, 프로젝트 극단 우아 등 공식 경연 5팀 및 초청 단체
관객 성과	총 638명
정량지표	진행 8일 / 공연 7개 / 공연 7회









II. 참여 축제 (장르별)

1. 연극/뮤지컬 축제

1-3.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축제명	제17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영문명	Pumashi Performing Arts Festival
기간	2025. 7. 30.(수) ~ 8. 3.(일)
장소	동탄복합문화센터, 민들레연극마을 일대
주최·주관	(주)극단민들레
소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나들이'형 공연예술축제** 기존 민들레연극마을 중심에서 올해는 동탄문화복합센터로 확대 개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구성.
기획 의도	• '도시와 농촌', '극장과 현장'을 연결하는 순수공연예술축제로서 지역적 경계를 허물고 관객 기반을 확장함. • '방정환' 프로젝트와 같은 주제 기획을 통해 어린이 문화 운동을 계승하고 축제의 인문학적 밀도를 강화함.
주요 운영 내용	• **국내외 작품 선정·초청 운영**: 실험적이면서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중심으로 구성, <Like the rain〉, 〈코 잃은 코끼리 코바〉, 〈소리나무〉 등 국내외 초청작 10편 운영 • **이원화된 공간 연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시형 극장예술)와 민들레연극마을(자연예술)을 동시에 활용하여 각 공간에 최적화된 예술 경험을 선사함. • **방정환 프로젝트**: 말맛극장 당선작 공연 및 포럼을 통해 어린이 무용 및 연극 교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함. • **마을 공동체 협력**: 주민 난타 참여, 마을 부녀회 식사 지원 등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품앗이' 정신의 축제 모델 구현.
참여 단체	이야기꾼의 책공연, 극단 깨움, 방정환연구소, Foule Théâtre(벨기에) 등 국내외 17팀
관객 성과	총 2,505명
정량지표	진행 5일 / 공연 15개 / 공연 2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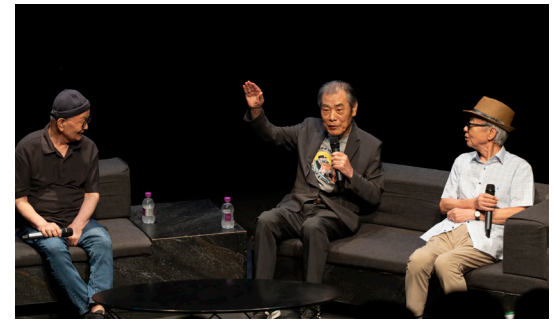
II. 참여 축제 (장르별)

1. 연극/뮤지컬 축제

1-4. (1) 푸른 · 늘푸른 – 늘푸른연극제

축제명	제10회 늘푸른연극제
영문명	Be Always Green Theater Festival
기간	2025. 7. 30.(목) ~ 8. 17.(일)
장소	서울연극창작센터
주최·주관	(사)한국연극협회
소개	**원로 연극인들의 대표작과 삶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연극제** 한국연극 백년사를 함께한 원로 예술가들의 무대를 통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예술가적 태도와 비전을 전하는 축제.
기획 의도	• 한국 연극계 원로예술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예술적 혼을 재조명하여 세대 간의 교류와 화합을 촉진함. • 대표작과 활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아카이빙하여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연극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전승하고자 함.
주요 운영 내용	• **아카이빙 중심의 공연 운영**: 기념공연의 연습 과정부터 실연까지 전 과정을 촬영·기록하여 축제의 결과물을 영구적인 데이터로 축적함. • **다큐멘터리 영상화 및 상영**: 원로 연극인의 평생 작업 자료를 다큐 형식 영상으로 제작·상영하여 기록의 입체성과 보존성을 높임. • **핵심 프로젝트 '연극인 정상철'**: 토크콘서트 형식을 통해 원로 예술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고 관객과의 접점을 넓힘. • **관객 참여 및 홍보 다각화**: 관객리뷰단 운영, 공연사진전 기획 등을 통해 원로 연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고 타겟 마케팅을 전개함.
참여 단체	박정자, 이종국, 최종원, 기국서 등 한국 연극사를 대표하는 원로 및 중견 연극인 참여
관객 성과	총 2,357명
정량지표	진행 19일 / 공연 갯수 5개 / 총 공연 횟수 21회









1. 연극/뮤지컬 축제

1-4. (2) 푸른 · 늘푸른 –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밀양

축제명	제29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밀양
영문명	Korea Youth Theater Festival Miryang
기간	2025. 8. 1.(금) ~ 8. 12.(화)
장소	밀양아리나, 밀양 아리랑아트센터
주최·주관	(사)한국연극협회
소개	**1997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연극축제** 청소년·지역·연극을 키워드로, 창작과 협업을 통해 인문학적 성장과 공동체 감각을 키우는데 초점. 극장에서 전문 연극인과 협업하며 소통하는 실천적 예술교육 현장.
기획 의도	• '해맑은 상상'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 연극 체험 및 창의 교육을 통해 경연을 넘어 교류·협업·소통의 연극 정신을 경험하게 함. •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 과정에서 '틀릴 자유와 고칠 용기'를 체득하도록 설계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주요 운영 내용	• **단계별 프로젝트 '붐(Boom)' 브랜딩**: 개막식(기적 붐), 본선 경연(꿈 붐), 청소년 기획단(상상 붐), 홍보 공모전(사랑 붐) 등 축제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함. • **캠프형 체류 시스템 운영**: 2개 학교를 1박 2일 단위로 묶어 밀양 현지에 체류하게 함으로써 전국 청소년 연극인들 간의 실질적인 유대감 형성을 독려함. • **현장 실전형 지도자 교육**: 지도교사를 위한 맞춤형 워크숍을 병행하여 단순 공연 발표를 넘어 교육적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를 확립함. • **청소년 주도적 기획**: 청소년 기획단 상상 붐을 통해 축제 기간 전후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참여 단체	명지고, 부산정보고, 전주제일고 등 전국 16개 시·도 예선을 통과한 대표 고교 연극동아리
관객 성과	총 2,168명
정량지표	진행 12일 / 공연 갯수 21개 / 총 공연 횟수 21회









1. 연극/뮤지컬 축제

1-5.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축제명	제35회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영문명	Korea MANDANGGUK Festival
기간	2025. 9. 5.(금) ~ 9. 7.(일)
장소	광명시민운동장 일대(특설무대)
주최·주관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
소개	**건강한 민중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마당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과 체험, 세미나 등이 펼쳐지는 공연예술축제** 전통 양식을 기반으로 민중을 위한 콘텐츠를 지역 중심으로 구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당극 특화 축제로 자리매김함.
기획 의도	• 수도권 개최를 통한 마당극 시장의 활성화와 마당극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여 연극 양식의 다양성을 확립함. • 기존 극장 중심의 관극 환경을 개방적인 '마당판'으로 확장하고, 로컬 기반의 예술 관계망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 운영 내용	• **축제 서사 구축**: 개막식(밴드 날다)부터 폐막 공연까지 축제의 흐름을 잇는 서사적 구성을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임. • **공연 라인업의 전문화**: 마당극 본 공연뿐 만 아니라 마임, 마술, 타악 등 인접 장르인 '자유참가작'을 편성하여 축제의 예술적 외연을 확장함. • **엄격한 작품 선정**: 단순 초청 방식이 아닌 작품의 수준과 신작 여부를 종합 판단하는 공모 시스템을 도입하여 축제의 질적 가치를 제고함. • **배리어프리 및 ESG 실천**: 수화 통역사 배치, 접근성 안내 부스 운영 및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를 실천함.
참여 단체	예술공장 두레, 마당극패 우금치, 극단 자갈치 등 국내외 14개 단체
관객 성과	총 10,388명
정량지표	진행 3일 / 공연 갯수: 14개 / 공연 횟수: 14회









2. 무용 축제

2-1.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in Korea

축제명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in Korea
영문명	ARTS in TANK Dance Festival in Korea
기간	2025. 7. 1.(화) ~ 7. 27.(일) ｜ 주요 현장축제: 2025. 7. 2.(수) ~ 7. 6.(일)
장소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성남아트리움, 예술가의집, 공간썬더 갤러리 외
주최·주관	아이엔지댄스코리아 / 아이엔지콜라보그룹
소개	**국제 협업과 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용 플랫폼** 세계 11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대면 축제 및 온라인 무용영화제 구성. 전통부터 실험까지 아우르는 장르·세대·국경 간 융합형 프로그램 운영.
기획 의도	• 서울과 성남이라는 지리적 거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무용가들이 상호 교류하는 글로벌 무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 무용의 동시대성과 예술적 수월성을 세계 무대에 확장함. • 단순 공연을 넘어 교육(워크숍), 시민 참여수업, 무용 영화제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무용 예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함.
주요 운영 내용	• **다층적 공연 구조**: 국내외 초청 안무가 및 중견·신진 예술가들의 신작 발표 무대를 서울과 성남 지역 주요 공연장에서 집중 개최함. • **글로벌 전문 워크숍**: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 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진행하는 테크닉 및 창작 워크숍을 통해 국내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함. • **무용영화제(댄스필름) 운영**: 현장 축제의 성과를 '아츠인탱크 무용영화제'와 '인탱크 컬렉션'으로 확장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지속적인 확산 체계를 마련함.
참여 단체	샌디 실바(캐나다), 얀 뢰로(프랑스), 버나드 브라운(미국) 등 해외 11개국 아티스트 및 신창호, 사이러스 캄바타 등 국내외 전문 무용가 대거 참여.
관객 성과	총 8,920명
정량지표	진행 약 27일, 공연·행사 10개 (총 27회 운영)









2. 무용 축제

2-2. 부산발레페스티벌

축제명	제7회 부산발레페스티벌
영문명	The Busan Ballet Festival
기간	2025. 7. 24.(목) ~ 7. 26.(토)
장소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및 전시실·연습실
주최·주관	부산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영도문화예술회관 / 부산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소개	**수도권 외 최대 규모의 발레 중심 축제** 세대와 계층, 시민과 전문 무용수가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구성. 지역 예술 관객층 확대와 문화 균형발전 지향.
기획 의도	• 지역 기반 발레 축제로서 발레 예술의 대중화와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함. • 청년, 시민, 전문 무용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발레 향유 인구를 확대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함.
주요 운영 내용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작 경연(Dance Wave) ▲청소년 무대(Youth Ballet) ▲생활발레 무대(Shall We Ballet) ▲국내 정상급 무용수 갈라(Special Gala)를 핵심 축으로 운영하여 축제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함. • **융복합 부대 행사**: 발레 워크숍, 댄스필름 상영, 발레 마켓 등 발레를 테마로 한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함.
참여 단체	국립발레단, 광주시립발레단, 부산오페라하우스발레단 등 전문 단체와 부산 MJ무용단, 쉘위발레단 등 지역 기반 아마추어·청소년 단체 참여.
관객 성과	총 585명
정량지표	진행 3일 / 주요 프로그램 7개 / 총 12회 운영









2. 무용 축제

2-3.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축제명	제22회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영문명	The Korea World Dance Stars Festival in Geoje & Seoul
기간	거제: 2025. 7. 30.(수) I 서울: 2025. 8. 2.(토) ~ 8. 3.(일)
장소	거제: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I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주최·주관	거제: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사무국 서울: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사무국
소개	**2001년 시작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외 진출 한국인 무용수 중심의 공공성을 지닌 다목적 국제 무용축제** 해외 무용단 소속 대한민국 무용수의 국내 공연 기회 제공, 해외 무용단 대표작 및 최신 무용 경향 국내에 소개, 해외 무용수들의 워크숍을 통한 국내 무용수 역량 강화, 유망 무용수들의 해외무대 진출 지원, 해외 무용수들의 국제 네트워킹 확대 및 안무 기회 제공
기획 의도	• **글로벌 성과 공유**: 세계 정상급 무용단 소속 한국 무용수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 공연 기회 제공 • **문화예술 향유**: 해외 최신 무용 트렌드 소개 및 지역 연계 공연을 통한 문화 격차 해소 • **미래 인재 양성**: 스타 무용수 워크숍 및 영스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글로벌 네트워킹**: 국내외 안무가·무용수 간 국제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장 • **지역 무용계 활성화**: 해외 유명 무용수와 우수 작품의 지역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
주요 운영 내용	• **해외 활동 무용수 초청**: 글로벌 메이저 무용단(발레·현대무용) 소속 한국인 무용수 초청 공연 및 국제교류 활성화 • **국내 정착한 해외 무용수 지원**: 해외 프로 무용단 출신 귀국 무용수 대상 공연 및 안무 기회 제공을 통한 국내 활동 안착 지원 • **차세대 유망주 발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젊은 무용수 선발 및 무대 경험 제공(영스타 프로그램) • **우수 안무가 연계**: 검증된 안무가와 해외 활동 무용수 간의 협업 안무 및 신작 창작 지원 • **교육 및 인재 양성**: 스타급 무용수 중심의 예술고교생 대상 마스터 클래스 및 무용 교육 실시 • **지역 무용 활성화**: 지역 연계(거제) 공연 개최 및 해설을 곁들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연 콘텐츠 다각화**: 국내 무용단 우수 작품 초청 및 갈라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공연의 대중성과 예술성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해외 유명 안무작 도입 및 외국인 무용수 초청을 통한 국제 무용 교류 기반 확대
참여 단체	• **해외 초청 무용수**: 이수빈(헝가리국립발레단), 임서린(미하일롭스키발레단), 이흥원(AURA), 권세현(전 네덜란드국립단) 등 한국인 스타 무용수 및 볼쇼이발레단 파트너 참여(6개국 6팀) • **국내 초청 무용수**: 구성모, 김민진, 김조흔, 강민우 등 국내 정상급 무용수 • **초청 영스타**: 박윤재, 김보경, 이원겸, 홍태이 등 차세대 유망주 4명 • **초청·지역 무용단**: 광주시립발레단, 모던테이블, K-Arts 발레단, 부산예고발레단 • **초청 안무가**: 김재덕, 조주현 등 글로벌 역량 안무가
관객 성과	총 1,131명 (거제공연 305명 / 서울공연 826명)
정량지표	공연작품 20편 / 공연 3회 / 워크숍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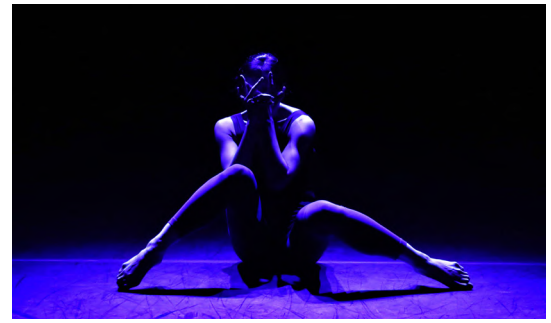
2. 무용 축제

2-4. 춘천공연예술제

축제명	2025 춘천공연예술제
영문명	CHUNCHEON ARTS FESTIVAL
기간	2025. 8. 12.(화) ~ 8. 16.(토)
장소	축제극장몸짓, 성암교회, 담작은도서관 등 춘천 일대
주최·주관	사단법인 텐스푼
소개	**2002년 춘천무용제의 '십시일반' 정신을 잇는 공연예술제** 매년 8월 춘천 주요 공연장에서 무용·음악·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성과 시대성을 조명하는 순수 공연예술 축제를 지향.
기획 의도	•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넘는 순수 공연예술 축제로, 예술성과 시대성을 갖춘 작품을 큐레이션하여 춘천 시민 및 방문객과 소통하고자 함. • 춘천의 지역성(Local)을 기반으로 수도권 중심의 공연예술 흐름을 지역으로 확장하고, 신진·중견 예술가를 발굴·소개하는 지역 거점 축제를 지향함.
주요 운영 내용	• **공모 기반 큐레이션**: 엄격한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강원 지역 신진 예술가를 소개하는 '강원 파인더'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운영함. • **공간 특화 공연**: 축제극장몸짓, 담작은도서관, 성암교회 등 춘천 일대의 주요 공간을 무대화하여 도심 전체에 축제적 경험을 제공함. • **전문가 및 관객 연계**: 무대 기술 워크숍 및 개막 리셉션을 통해 창작·제작 인력과 관객이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
참여 단체	[강원파인더] WHY NOT PROJECT, Breakthrough [시그니처] 브레시트댄스컴퍼니, 양승관, 서정빈 등 무용 단체와 박순아, IAM(강은일, 박석주, 노선택, 김동원), 강윤미x데이빗모왓 BEJE 리유니언 등 음악 단체 포함 약 20여 팀
관객 성과	총 625명
정량지표	진행 5일 / 프로그램 20개 / 공연 7회









2. 무용 축제

2-5.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축제명	제31회 창무국제공연예술제 : 대지의 목소리
영문명	Changmu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기간	2025. 8. 22.(금) ~ 8. 30.(토)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세종예술의전당, 포스트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주최·주관	(사)창무예술원 /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
소개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제 무용 페스티벌** 한국 춤의 철학과 미감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예술세계를 연결하고, 국내외 무용가 간 교류와 창작 역량을 확장하는 장으로 기능함.
기획 의도	• 한국 춤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외 합작 및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동시대 춤 교류의 핵심적인 국제 무대를 확장함. • '대지의 목소리'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안무가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
주요 운영 내용	• **국제 교류형 기획**: 'East meet West', 'Changmu Prize' 등 국제 교류와 경연 성격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안무가들의 예술적 대화를 이끌어냄.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뉴욕과의 교류 프로젝트인 'Solo Duo Dance Festival' 등을 통해 지역적 경계를 넘는 유통 채널을 가동함. • **이론적 담론 형성**: 부대 행사로 '열린 몸 학교' 워크숍과 기획자·안무가·이론가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여 학술적 깊이를 더함.
참여 단체	Sankai Juku(일본), Collectief Mamm(네덜란드) 등 해외 유수 단체와 최윤실, 박준형, 최재혁 등 국내 중견 안무가 참여
관객 성과	총 2,510명
정량지표	진행 8일 / 공연 갯수 35개 / 총 10회 집중 편성









2. 무용 축제

2-6. 대한민국무용대축제 (통합)

축제명	2025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영문명	Korean Dance Grand Festival
기간	2025. 4. ~ 12.
장소	서울·충청권 일대 (아르코예술극장, 천안예술의전당, 천안흥타령춤축제 주무대,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M극장,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등)
주최·주관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사단법인 한국춤협회, 사단법인 한국현대무용협회, 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 / 대한민국무용대상 운영위원회 및 사업별 운영위원회
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2025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사)대한무용협회를 중심으로 장르별 무용 협회 및 학회의 연대와 협력, 무용 분야 대화합을 기반으로 한 종합 무용축제의 구축
기획 의도	• (사)대한무용협회, (사)한국춤협회,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사)한국발레협회와 한국무용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한국무용과학회 등 대한민국 무용 분야를 대표하는 4개 협회 및 3개 학술단체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무용계의 대화합을 실현하고 통합적 위상을 제고함. - (사)대한무용협회: 전국무용제 사전축제, 대한민국무용대상, 신진예술가육성프로젝트-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 (사)한국춤협회: 춤&판 고무신춤축제 -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안무가 매칭 프로젝트 생생 춤 페스티벌 •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전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용 예술의 대중화 및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함. • 장르별 특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진부터 중견 예술가까지의 발굴, 육성 및 성장의 경로를 확장하고 창작 무용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
주요 운영 내용	• **통합 브랜드 전략** : 6개 핵심 사업을 「대한민국무용대축제」 단일 브랜드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합 사무국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함. • **광역 분산 개최 및 공간 활용**: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주요 공연장에서 분산 개최하여 지역 문화 예술 균형 발전을 도모함. • **단계별 구조 확립**: 공모-경연-공연-멘토링-재공연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구축하여 무용예술가들의 창작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함. • **레퍼토리화와 국제 유통 확장**: 국제 경연·오디션 운영과 우수 작품의 레퍼토리화를 통해 K-Dance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함.
참여 단체	안무가 약 100여 명, 예술단체 약 90여 팀, 출연진 약 1,600명 내외의 전 세대 예술가
관객 성과	총 11,369명
정량지표	사업 기간 약 9개월 / 통합 운영 사업 수 6개 / 주요 공연·행사 약 30회 내외











2. 무용 축제

2-6. (1) 전국무용제 사전축제

축제명	K-발레 월드스타 갈라, 학술심포지엄
영문명	K-Ballet World Star Gala, Academic Symposium
기간	공연: 2025. 8. 30.(토) ㅣ 학술: 2025. 9. 5.(금)
장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대전시립미술관 대강당
주최·주관	대전광역시, (사)대한무용협회 / 제34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
소개	**전국무용제는 대한민국무용대축제의 시초격으로 무용제에 본격적인 무용분야 협회, 학회와의 협업을 시도함.** 국내외 발레단 초청공연 및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예술성과 학문적 의미를 동시에 확장하고 있음.
기획 의도	• 국내 최대 규모 무용 축제인 전국무용제의 서막을 알리는 고품격 발레 공연과 학술 교류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함.
주요 운영 내용	• **K-발레 월드스타 갈라**: 국내외 정상급 발레 스타 11인을 초청,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공연을 전석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폭발적인 문화 예술 수요 충족 • **학술 담론 형성**: '문화도시 대전, 춤을 통한 글로컬리제이션과 창조적 도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무용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논의 • **문화 포용성 실천**: 장애인 및 고령자 대상 무용 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춤 서비스'를 운영하여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
참여 단체	(사)한국발레협회 및 국내외 정상급 발레 스타 11명 (K-발레 월드스타 갈라) 무용역사기록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무용과학회 (학술심포지엄)
관객 성과	총 706명 (K-발레 월드스타 갈라 678명 + 학술심포지엄 28명)
정량지표	진행 2일 / 발레 갈라 1회, 학술 심포지엄 1회 운영









2. 무용 축제

2-6. (2) 안무가 매칭 프로젝트 생생 춤 페스티벌

축제명	안무가 매칭 프로젝트 제27회 생생 춤 페스티벌
영문명	Saeng-Saeng Dance Festival
기간	2025. 9. 3.(수) ~ 9. 6.(토)
장소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주최·주관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소개	**공연예술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주목받는 독립 안무가와 전문 무용단체 간 매칭을 추진** 국내 무용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상호교류를 통해 창작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새로운 예술창작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기획 의도	독립 안무가–전문 무용단체를 연결하는 '매칭' 구조를 통해 통로 역할에 주력함으로써 국내 무용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또 다른 예술 창작의 디딤돌이 되는 페스티벌
주요 운영 내용	**4일간(2025.9.3~9.6) 24개 작품, 총 4회 공연**으로 운영하며, 독립 안무가와 전문 무용단체의 협업을 통해 창작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현대무용 플랫폼이며, 차세대 예술인을 지원하며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한국 현대무용 대표 매칭형 페스티벌
참여 단체	이대건XCrayon Dance Project, 오찬명X훈댄스컴퍼니, 권재헌X가림다 댄스 컴퍼니, 김정훈XCAU Movement Factory, 이은경X조성희 AHA 댄스 씨어터, 홍경화X김영미댄스프로젝트, 양승관X계원 카시아무용단, 박소현XSystem on Public Eye, 정록이X유빈댄스, 한상률XSIA 무용단, 박정무X프로젝트 S, 이해준X밀물현대무용단, 이형희·김규진X이형희 무용단, 정하늘XKARTS무용단, Leila McMillan·김나이XSKK-人 Dance, 이언주X더파크댄스, 김수정X이정연댄스프로젝트, 권은기X툇마루무용단, 이지희XSAC DANCE COMPANY, 정수동X김현남 Dance Lab, 손민X댄스트리엔터테인먼트, 강혁X블루댄스씨어터, Paola Petrongolo·석진환X두아코 댄스컴퍼니, 최우석X모션크리에이티브 컴퍼니 / 총 24팀
관객 성과	총 2,500여 명
정량지표	진행 4일/ 공연 4회(회당 6작품 총 24작품)









2. 무용 축제

2-6. (3) 신진무용예술가육성프로젝트_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축제명	2025신진무용예술가육성프로젝트_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영문명	KOREA INTERNATIONAL CONTEMPORARY DANCE COMPETITION
기간	지역쿼터: 2025. 3월 ~ 6월 ｜ 국내 예선: 2025. 7. 5.(토) ｜ 해외예선: 2025. 8. 12.(화) 개막식 및 본선: 2025. 9. 21.(일) ~ 9. 23.(화) ｜ 시상식 및 폐막식: 2025. 9. 23.(화) 국제오디션 및 워크숍: 2025. 9. 24.(수) ~ 9. 25.(목)
장소	천안예술의전당, 영등포아트홀 및 전국 13개 광역시·도 공연장
주최·주관	(사)대한무용협회, 천안문화재단 /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조직위원회
소개	2010년 창설된 국제 현대무용 경연대회 'KICDC'를 기반으로, 세계 유망 무용수의 교류와 경쟁을 통해 글로벌 무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제고하는 **국제 콩쿠르형 육성 프로젝트**
기획 의도	• 국내외 유망한 신진 현대무용인을 발굴하고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무용가를 양성하는 국제적 육성 플랫폼을 지향함.
주요 운영 내용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KICDC 참가자 중 우수한 자를 선별하여 '아시아 댄스 오디션(ADA)' 파이널 무대로 직행하는 초청권 부여. 본 오디션을 통해 영국 램버트 스쿨, 프랑스 아비뇽 오페라 무용단, 뉴욕 페리댄스 컴퍼니 등 해외 유수 단체 관계자와의 직접 채용 및 스칼라십 연계 • **국제적 전문성 강화 및 공정성 제고**: 본선 심사위원단을 전원 해외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며, 참가자들은 해외 심사위원단 및 안무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무용 영재 육성 및 해외 진출 방안 제공**: 국내 개최 국제 오디션 및 워크숍을 통해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 관련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발굴된 무용 영재들이 수상 이후에도 실질적인 교육과 경력으로 연계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젝트 창출 • **지역 균형 발전**: 전국 13개 광역시·도 지역 쿼터제를 운영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무용 인프라를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
참여 단체	국내외 예선 및 본선 참가자 전 세계 20개국 675명 참가, 국제 워크숍 55명, 국제 오디션 26명
관객 성과	총 1,557명
정량지표	진행 총 8일 / 경연 및 워크숍 등 총 9개 프로그램 운영









2. 무용 축제

2-6. (4) 춤&판 고무신춤축제

축제명	제15회 춤&판 고무신춤축제
영문명	CHUM&PAN GOMUSIN DANCE FESTIVAL
기간	**[춤&판]** 2025. 9. 4.(목) ~ 9. 6.(토) **[고무신춤축제]** 2025. 9. 24.(수) ~ 9. 25.(목)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서울아트센터 도암홀
주최·주관	(사)한국춤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춤협회가 주최하는 전 세대 무용인이 참여하는 축제** 전통춤의 뿌리를 지키는 동시에 신전통 창작춤을 발굴하며, 한국 춤의 세대통합과 K-Culture의 정체성을 선보이는 교류의 장으로 성장함.
기획 의도	• 한국 전통춤의 창조적 계승과 현대적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며, 원로 무용수부터 청년 예술가에 이르는 전 세대 간의 예술적 교류를 통해 한국춤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함.
주요 운영 내용	**[춤&판] 전통의 현대화**: 승무·살풀이 등 무형유산 보존과 더불어 설북시나위·쌍장구춤 등 독창적 '신전통' 레퍼토리를 발굴하여 한국춤의 예술적 외연을 확장하고 외국인 전용 다국어 지원 체계 구축 **[고무신춤축제] 청년 인큐베이팅**: 12개 대학 무용과가 참여하는 '고무신연합프로젝트팀'을 구성, 전문 안무가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 및 제작 역량 강화 • **기록 및 피드백**: 축제 종료 후 '합평회'를 개최하여 현장 경험을 아카이빙하고, 행정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 출연진과 개별 계약 및 사례비 집행 체계 확립
참여 단체	13개 전문 무용 단체 및 12개 대학 무용과, 총 320명의 예술인 참여
관객 성과	총 2,537명
정량지표	진행 약 5일 / 춤&판(3회), 고무신(2회), 멘토링 클래스 등 총 5개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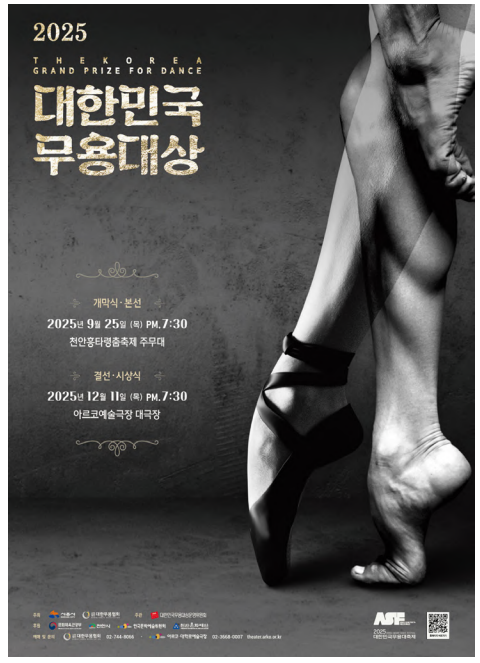




2. 무용 축제

2-6. (5) 대한민국무용대상

축제명	2025 대한민국무용대상
영문명	The Korea Grand Prize for Dance
기간	예선: 2025. 6. 18.(수) | 본선: 2025. 9. 25.(목) | 결선: 2025. 12. 11.(목)
장소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209호(예선), 천안흥타령춤축제 주무대(본선),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결선)
주최·주관	시흥시, (사)대한무용협회 / 대한민국무용대상 운영위원회
소개	**대한민국 무용가들의 최고 기량과 예술성을 겨루는 경연 무대**로, 무용의 대중화와 산업화, 국제화를 목표로 함.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무용계의 신뢰를 확보하며, 수상자에게는 권위있는 영예를, 대중에게는 무용의 예술성과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기획 의도	• 대한민국 무용계의 대표 레퍼토리를 발굴·집약하는 최고 권위의 경연 축제로, 우수 작품에 대한 제작 지원과 재공연 기회 제공을 통해 무용 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 운영 내용	• **작품 창작 환경 개선**: 참여 단체의 창작 여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관, 장비, 스텝 등 기술적 필수 요소를 지원하고 본선 경연 단체 지원금 400만 원, 결선 경연 단체 지원금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작품의 완성도 제고 유도 (총 36개 단체, 549명 참여) • **공정성 및 대중성 확보**: 전문 심사위원단과 더불어 다양한 연령, 지역, 직군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제'를 병행 운영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예술적 공감대 형성 • **K-Dance 글로벌 홍보**: 전 세계 22개국 무용수와 해외 관계자가 참관하는 야외 대형 무대에서 본선 경연을 진행하고 해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한국 무용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발신함
참여 단체	홍경화현대무용단, (사)춤다솜무용단_이너펄스, C2 DANCE, bnp company, (주)CDCP ENT, Project S, (사)서울발레시어터, (사)무용단 알티밋, LDP 등 총 36개 국내 중견·대표 무용단 참여
관객 성과	총 4,049명 / 본선 - 약 3,500여명 , 결선 - 549명
정량지표	예선–본선–결선 단계 운영 / 본선 공연 1회(개막식 포함), 결선 공연 1회(폐막식 포함)









3. 음악 축제

3-1.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축제명	제36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영문명	Daegu International Contemporary Musik Festival
기간	2025. 6. 25. (수) ~ 6. 27. (금)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챔버홀, 뮤직카페 등 전관 활용)
주최·주관	젊은 음악인의 모임, 대구콘서트하우스 / 젊은 음악인의 모임
소개	**한국 현대창작음악의 세계적 확산을 이끄는 국제 음악 플랫폼** 대한민국 대표 창작음악제로서 아시아·유럽 연계를 통한 국제 교류, 한국 현대창작음악 가치의 세계적 확산, 국제 창작 교류 플랫폼 기능 수행.
기획 의도	• 1990년 시작된 30여 년의 역사를 계승하며, 전 세계 작곡가와 연주자가 교류하는 국제적인 창작 음악 플랫폼 및 허브(Hub)로서의 기능을 강화함. • 학생 공모 및 젊은 작곡가 위촉을 통해 차세대 창작자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연주 기회와 전문가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함. • 혁신적인 영상 기획과 전자음악,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통해 현대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대중적 저변을 확대함.
주요 운영 내용	• **국제적 예술 협업**: 독일 '앙상블 르쉐르쉬', 영국 '캐비넷 오브 큐리오시티' 등 해외 전문 연주 단체 초청 공연 및 리딩 세션을 통해 수준 높은 창작 음악을 발표함. • **신진 작곡가 인큐베이팅**: 리딩 세션(Reading Session)과 젊은 작곡가와의 대담을 통해 연주자-창작자 간의 심도 있는 예술적 교류 장을 마련함. • **관객 소통형 부대행사**: 프린지 톡(Fringe Talk)과 마스터클래스를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하여 현대음악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함. • **수익 구조 안정화 및 아카이빙**: 유료 관객 점유율 92.3% 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전 과정을 영상 기록하여 사후 확산을 도모함.
참여 단체	영완 음악감독 외 국내외 예술가 총 59명 (국내 47명, 해외 12명) 및 4개 전문 단체
관객 성과	총 1,238명 (공연 관람객 922명 + 부대행사 참여자 316명)
정량지표	진행 3일 / 운영 프로그램 수 총 13개 (연주회 7회, 부대행사 6회)









3. 음악 축제

3-2. 줄라이 페스티벌

축제명	2025 줄라이 페스티벌
영문명	July Festival
기간	2025. 7. 1.(화) ~ 7. 31.(목)
장소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본 공연), 경남 함안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10개 지역(지역 공연)
주최·주관	더하우스콘서트
소개	**더하우스콘서트가 매년 7월 한 달간 매일 진행하는 클래식 여름 음악제** 베토벤부터 슈만까지 주요 작곡가를 주제로 삼아 그 음악 세계를 탐구해 왔으며, 2025년 주제는 스트라빈스키와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들.
기획 의도	• 특정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집중 조명하여 클래식 음악 향유의 깊이를 더하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는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밀도 높은 음악 경험을 선사함. • 서울 중심의 인프라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간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고 예술 생태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
주요 운영 내용	• **테마 작곡가 집중 탐구**: 7월 한 달간 매일 공연을 개최하는 집중 편성으로 스트라빈스키 등 현대 러시아 작곡가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개함.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확산**: 전 공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누적 조회수 5.3만 회)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향유 환경을 구축함. • **지역 하우스콘서트 연계**: 서울 참여 아티스트들이 전국 10개 지역 문예회관 및 살롱 음악회로 찾아가는 유통 네트워크를 실천함. • **참여형 후원 문화 구축**: 크라우드펀딩(148명 참여)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관객이 축제 제작에 동참하는 새로운 후원 모델을 제시함.
참여 단체	지휘자 백윤학·진솔, 피아니스트 박재홍 등 총 237명의 전문 예술가 및 지역 공연장 10개소
관객 성과	총 2,231명 (본 공연 1,705명 + 지역 공연 526명)
정량지표	진행 31일(한 달간 매일 개최) / 총 공연 횟수 44회









3. 음악 축제

3-3.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

축제명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
영문명	Hic et Nunc! Music Festival
기간	2025. 8. 22.(금) ~ 9. 5.(금)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관 중강당, 언커먼 갤러리, 광진어린이공연장, 소전서림 등
주최·주관	사단법인 세종솔로이스츠
소개	**음악과 문학, 전통과 현대, 거장과 신진의 협업을 통해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음악 축제** 프랑스 베스트셀러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 젊은 비르투오소 연주자들의 무대를 통해 청중에게 새로운 서사를 제안함.
기획 의도	• **사회적 역할 확대**: 동시대 사회 이슈에 대한 예술적 고찰 및 사회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예술활동 지향 • **다각적 협업 모색**: 예술적 파급력 제고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이종 장르 간 협업 가능성 타진 • **사회적 가치 확산**: 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 강화 및 문화예술의 외연 확장 추진
주요 운영 내용	• **글로벌 아티스트 초청 및 세계 초연** - 세계적 연주자와의 협업을 통한 국내·아시아 초연 레퍼토리 확보 및 소개 - 타 예술 장르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하며 클래식 예술의 확장 가능성 모색 • **문학·음악 융합형 문화행사 모델 제시** -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세계적 작가와의 협업을 통한 문학·음악 결합 공연 모델 구축 - 저명학자가 참여하는 프리콘서트 렉처 운영으로 작품의 철학적·인문학적 이해도 제고 및 예술 간 심층적 연관성 조명
참여 단체	바이올리니스트 길 샤함, 아델 앤서니,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총 36명의 전문 예술가 및 지역 공연장 6개소
관객 성과	총 4,617명
정량지표	진행 15일 / 공연 횟수 10회









4. 전통예술

4-1. 대한민국대학국악제

축제명	제14회 대한민국대학국악제
영문명	Korea University Gugak Festival
기간	2025. 8. 14.(목)
장소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
주최·주관	(사)문화문, (재)강북문화재단 / (사)문화문, (주)JSK프로덕션
소개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창작 국악 경연대회** 젊은 국악인들이 창작력과 실험 정신을 발휘해 전통국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K-Music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플랫폼으로 성장 중.
기획 의도	• 전국 대학(원)생 대상 창작 국악 경연을 통해 젊은 국악인의 등용문을 마련하고, 전통 예술의 고유 가치를 창의적으로 재발견함. • 국악이 'K-Music'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여 세계 음악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악 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주요 운영 내용	• **융합형 창작 권장**: 국악뿐만 아니라 타 전공자와의 협업을 유도하여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적인 국악 콘텐츠 창출을 장려함. • **단계별 전문 검증 시스템**: 비대면 예선(19팀)을 거쳐 본선 5개 팀의 무대 실연 심사를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미래 국악 스타를 발굴함. • **글로벌 컨설팅 및 사후 육성**: 수상팀 대상 해외 마켓 진출 컨설팅 및 해외 한국문화원 초청 공연 연계 등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경로를 지원함.
참여 단체	경연 참가 19팀(148명), 사회자 천지윤 및 기술·운영 전문 인력 20명
관객 성과	총 600명
정량지표	진행 1일 (본선 실연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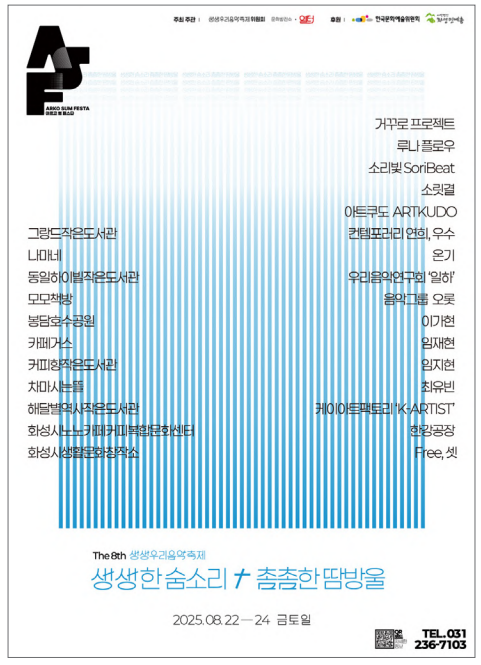




4. 전통예술

4-2. 생생우리음악축제

축제명	제8회 생생우리음악축제
영문명	Live Our Music Festival
기간	2025. 8. 22. (금) ~ 8. 24. (일)
장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대 (아틀리에, 책방, 카페, 도서관, 공원 등 동시발행)
주최·주관	문화발전소 열터 / 제8회 생생우리음악축제 운영위원회
소개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우리음악 축제**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아틀리에, 책방,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 진행. 딱딱한 '국악'에서 벗어나 활짝 열린 '우리 음악'을 지향.
기획 의도	• '무대와 객석의 밀착'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이 일상 공간에서 가깝게 소통하는 새로운 공연 관람 문화를 정착시킴. • 젊은 국악 아티스트들의 실험적 무대를 지원하여 전통 예술의 동시대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거점의 활성화를 도모함.
주요 운영 내용	• **일상 공간의 무대화**: 카페, 책방, 공원 등 소규모 생활 공간을 공연장으로 변모시켜 관객의 심리적·물리적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춤. •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만요,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의 신진 아티스트 20여 팀을 공모 선정하여 소규모 공간에 최적화된 발표 기회를 제공함. • **동시다발적 릴레이 공연**: 화성 봉담 지역 내 여러 거점에서 동시에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 전체를 하나의 축제 공간으로 전환함. • **바이럴 마케팅 전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아티스트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전통 예술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함.
참여 단체	전야제 : 컨템포러리 연희 '우수', 아트쿠도, 루나플로우 본축제 : 거꾸로프로젝트, 소리빛, 소릿결, 온기, 우리음악연구회 등 13팀 출연
관객 성과	총 2,510명
정량지표	진행 3일 / 주요 공연 총 20회 내외 소규모 릴레이 공연









4. 전통예술

4-3.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축제명	제21회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기간	2025. 8. 29.(금) ~ 8. 31.(일)
장소	충북 청주시 예술공장 두레 야외공연장 및 형동리 마을 일원
주최·주관	문화발전소 열터 / 제8회 생생우리음악축제 운영위원회
소개	**도시 중심의 축제와 달리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마당극 예술축제** 현재는 도시민까지 찾아오는 개방형 예술축제로 확장됨. 삶의 여유와 공동체적 치유, 함께 웃고 즐기는 전통연희 중심의 축제.
기획 의도	• 농촌 지역의 문화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마당극이라는 전통 예술 형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 되는 '대동 정신'을 구현함. • 우수 마당극 레퍼토리를 보존·계승하는 동시에 현대적 변용을 시도하여 전통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함.
주요 운영 내용	• **마을 밀착형 축제 모델**: 지역 주민이 단순 관람객을 넘어 축제의 주체(길놀이, 마을 먹거리 장터 등)로 참여하는 주민 밀착형 운영을 실현함. • **전국 단위 레퍼토리 초청**: 검증된 우수 마당극 단체들을 초청하여 농촌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예술 향유 기회를 상시 제공함. • **글로벌 네트워크 및 유통 지원**: 축제 참여작의 해외(에든버러 등) 진출 및 타 지역 축제 초청을 연계하는 예술 유통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함.
참여 단체	(사)예술공장 두레, 극단 현장, 연희공방 음마갱깽 등 약 10여 개 전문 단체 및 100여 명의 예술 인력
관객 성과	총 1,500명 내외
정량지표	진행 3일 / 주요 공연·행사 총 12회 내외 (공식초청작 8편, 기획공연 2편 등)









III

통합 홍보

1. 추진 개요 및 성과 62
- 1-1. 추진 개요
- 1-2. 주요 추진 성과
- 1-3. 참여단체 만족도 조사 결과

2. 통합 브랜딩 66
- 2-1. BI & 키비주얼

3. 통합홍보 행사 67
- 3-1. 프리뷰위크
- 3-2. 팝업 이벤트

4. 언론 홍보 74
- 4-1. 추진 방향
- 4-2. 기자간담회
- 4-3.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
- 4-4. 기획기사

5. 온라인 홍보 84
- 5-1. 홈페이지
- 5-2. 인스타그램
- 5-3. 유튜브 & 검색 광고
- 5-4. 축제 방문 캠페인
- 5-5. 바이럴 홍보

6. 서포터즈 운영 89
- 6-1. 추진 방향
- 6-2. 서포터즈 운영 개요
- 6-3. 서포터즈 운영
- 6-4. 서포터즈 콘텐츠 운영 결과

7. 옥외 광고 94

III. 통합 홍보

1. 추진 개요 및 성과

1-1. 추진 개요

구분		기간 / 장소	세부 내용
통합홍보 행사	프리뷰위크	7. 5.(토) ~ 7. 6.(일) 아르코예술극장 및 마로니에공원 일대	쇼케이스, 워크숍, 홍보/이벤트 부스 사진/영상 촬영 및 제공
	팝업이벤트	7. 12.(토) ~ 8. 23.(토) 매주 토요일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	7~8월 매주 토요일 현장 이벤트 운영
홍보 마케팅	언론홍보	7~9월 방송통신대 대강당 등	통합기자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제작·배포, 기획기사 운영
	홈페이지	7~9월 온라인	통합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홍보	7~9월 온라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공식채널 개설 운영 블로그 콘텐츠 운영
	바이럴홍보	7~9월 온라인, 현장방문	네이버 카페, 블로그 사전 및 방문콘텐츠
	서포터즈	7~9월 온라인, 현장방문	총 30명 운영, 사전홍보 및 리뷰콘텐츠
	옥외광고	7~8월 서울 및 전국	서울 지하철, 대학로 문화게시판 전국 편의점 광고

1-2. 주요 추진 성과

구분		참여 / 노출 규모	정량 성과
통합홍보 행사	프리뷰위크	참여 축제 28개 (쇼케이스 9 / 워크숍 5 / 부스 14)	쇼케이스 관객 324명 부스 방문 약 3,000명
	팝업 이벤트	총 6회 운영	참여 관객 약 3,000명 이벤트 참여 1,200명
홍보 마케팅	언론 홍보	기자간담회 1회 운영 보도자료 7회 제작·배포	언론 보도 총 173건 (지면 15건 / 방송 2건 / 온라인 154건)
	홈페이지	방문자 5,369명	페이지뷰 111,140회
	인스타그램	콘텐츠 64건	노출 539,229회 도달 305,369회
	유튜브	콘텐츠 20건	조회수 157,461회 도달 1,286,791회
	네이버 검색 광고	노출 3,662회	평균 클릭률 44%
	축제 방문 캠페인	참여 축제 16곳	캠페인 참여자 446명
	바이럴 홍보	총 게시물 403건	조회 28,604회 공감 9,230회
	서포터즈 운영	서포터즈 30명	콘텐츠 336건 조회 19,045회

III. 통합 홍보

1. 추진 개요 및 성과

1-3. 참여단체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5. 8. 1.(월) ~ 10. 16.(목)
- 조사 대상: 통합유형 17개 축제(20개 행사)의 18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참여 인원: 인터뷰 응답자 40명, 설문조사 37명 참여
- 조사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한 릴레이 인터뷰 및 별도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

(2) 주요 인터뷰 의견

① 홍보 및 대외 노출 성과 (최대 장점)

- **홍보 효과 극대화**: 온라인 및 매스컴 노출 확대를 통한 축제 인지도 제고에 대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 단일 축제의 역량을 넘어선 통합 브랜드 차원의 홍보로 축제 위상 확장 기여.
- **브랜드 노출 전략 개선**: 개별 축제보다 '아썸페' 브랜드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주객전도 현상 개선 필요. 개별 축제의 정체성과 고유 매력이 드러나는 홍보 방식 요청.
- **지역 홍보 실효성 제고**: 서울 중심의 옥외광고 및 홍보부스 운영은 지역 소재 축제의 체감 효과가 미비함.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②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개선 영역)

- **실무 부담 완화**: 짧은 준비 기간 및 행정 업무 과중, 소통 미흡에 대한 현장 불만 확인.
- **상시 소통 체계 정립**: 운영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사전 준비 과정 공유, 결과 피드백 등 단체 간 긴밀한 소통 구조 구축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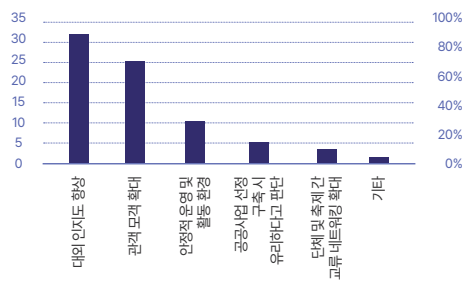
③ 네트워킹 및 통합 시너지 (실효성 강화)

- **플랫폼 역할 확대**: 단순 통합 홍보를 넘어 축제 간 실질적 정보 공유와 연계를 위한 중재자 역할 기대.
- **교류 기반 마련**: 단체 간 협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의 장 마련 요청.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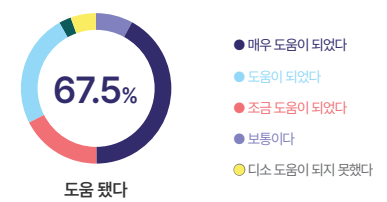
• 사업 참여 현황 및 인지도

Q. 아르코 썸 페스타에 참여한 이유(최대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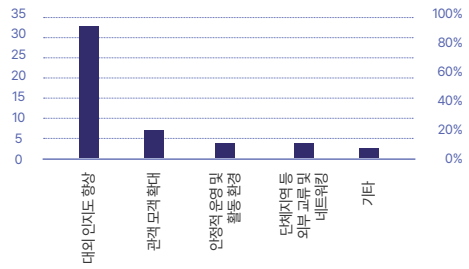
• 사업 효과성

Q. 아르코 썸 페스타는 축제에 도움이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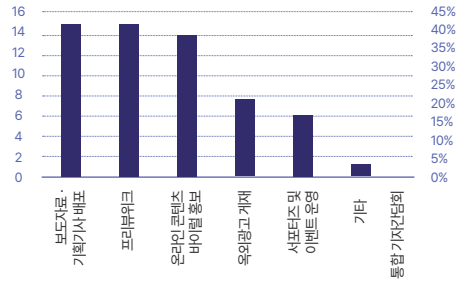
• 사업 효과성

Q.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 (최대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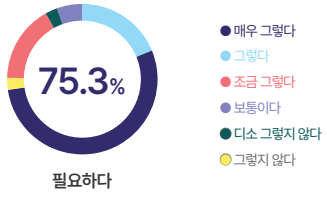
• 사업 효과성

Q. 가장 큰 도움이 된 활동 (최대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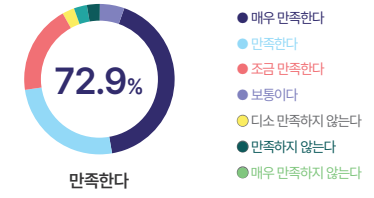
• 지속 운영 필요성

Q.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 사업 만족도

Q. 아르코 썸 페스타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통합 브랜딩

BI & 키비주얼

(1) 추진 방향

- BI와 키비주얼을 통해 개별 축제를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관객과 축제를 잇는 흐름과 몰입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구현함

(2) BI (Brand Identity)

ARKO + SUM + FESTA의 약어인
A·S·F를 시각적 **BI로 구현**



- 아르코(A)와 각 페스티벌(F)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상화한 구조
- 개별 축제를 넘어 하나의 흐름으로 확장되는 공연예술 축제 네트워크의 상징

(3) KEY-VISUAL

2025 아르코 썸 페스타
키비주얼 콘셉트 : **'연결'**과 **'통로'**

- 관객과 축제를 잇는 매개이자 통로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축제의 흐름 속으로 자연스럽게 몰입해 들어가는 관객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



3. 통합홍보 행사

3-1. 프리뷰위크

(1) 추진 방향

- 쇼케이스·워크숍·홍보부스를 연계한 프리뷰위크 운영을 통해 참여 축제의 사전 인지도와 관객 접점을 확대하고 본 행사로의 관람 유입을 도모함

구분	내용	결과
행사운영	7. 5.(토) ~ 7. 6.(일) 총 2일 간	쇼케이스, 워크숍, 홍보/이벤트 부스 운영
축제 참여	쇼케이스	총 9개 축제 쇼케이스 참여
	워크숍	총 5개 축제 워크숍 참여
	홍보부스	총 14개 축제 홍보부스 참여
관객 참여	쇼케이스	사전예약 461명, 실관람자 총 324명 (7/5 233명, 7/6 91명)
	부스방문	약 3천 명 내외



3. 통합홍보 행사

3-1. 프리뷰위크

(2) 행사 개요

○ 목적: 17개 축제가 함께하는 사전 행사를 진행하여 홍보 효과 제고

○ 기간: 2025. 7. 5.(토) ~ 7. 6.(일)

○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마로니에 공원 일대

○ 주요 프로그램

- 쇼케이스: 올해 축제의 주요 공연 소개
- 이벤트 및 안내부스: 축제 통합 홍보, 이벤트 운영
- 워크숍: 올해 축제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중 일부 선공개
- 홍보부스: 축제별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홍보 부스

(3) 프로그램 구성

구분	장소	일정	세부 내용
쇼케이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사전예약제	2025. 7. 5.(토) 14:00 ~ 16:20	무용축제 쇼케이스 <몸, 경계를 넘다> •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40분) •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20분) • 춘천공연예술제 (15분) • 창무국제공연예술제 (65분)
		2025. 7. 6.(일) 14:00 ~ 15:20	음악&연극축제 쇼케이스 <소리, 경계를 넘다> • 줄라이페스티벌 (40분) • 품앗이공연예술축제 (40분)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	2025. 7. 5.(토) 18:00	전통축제 쇼케이스 <전통, 장르를 넘다> I • 생생우리음악축제 (40분)
		2025. 7. 6.(일) 18:00	전통축제 쇼케이스 <전통, 장르를 넘다> II •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25분) •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30분)
워크숍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사전예약제	2025. 7. 5.(토)	워크숍 <움직이는 감각, 만나는 예술> • 13:00 춤&판 고무신춤축제 (1시간) • 17:00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1시간) • 19:00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90분)
		2025. 7. 6.(일)	워크숍 <움직이는 감각, 만나는 예술> II • 14:00 마당극 만들기 (1시간) • 16:00 부산발레페스티벌 (1시간) • 18:00 창무국제공연예술제 (1시간)

구분	장소	일정	세부 내용
홍보부스	마로니에공원 광장	2025. 7. 5.(토) ~ 7. 6.(일) 13:00 ~ 19:00	줄라이페스티벌, 힉엣눙크뮤직페스티벌,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등 총 14개 축제 참여
이벤트부스	마로니에공원 광장		스티커 투어 이벤트, 팔로우 이벤트

(4) 공간 운영

○ 컨셉



○ 공간별 구성



3. 통합홍보 행사

(5) 관객 운영

○ 사전예약 운영
- 홈페이지에 쇼케이스 및 워크숍 사전예약 페이지 생성
- 사전예약 버튼 클릭 시 구글폼으로 링크 연동하여 예약자 취합
- 사전예약자 대상 굿즈 제공, 안내문자 지속 발송하여 관리

○ 사전예약 목록

구분	프로그램	신청자
쇼케이스	무용	212명
	음악&연극	96명
	전통	50명
워크숍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33명
	창무국제공연예술제	24명
	대한민국무용대축제	23명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12명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11명
합계		461명









(6) 관객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2025. 7. 21.(월) ~ 7. 28.(월) 일주일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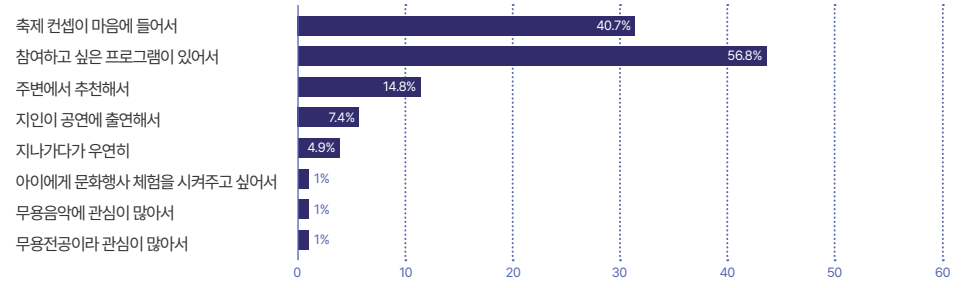
○ 조사대상: 프리뷰위크 사전예약 후 실관람자

○ 응답자: 총 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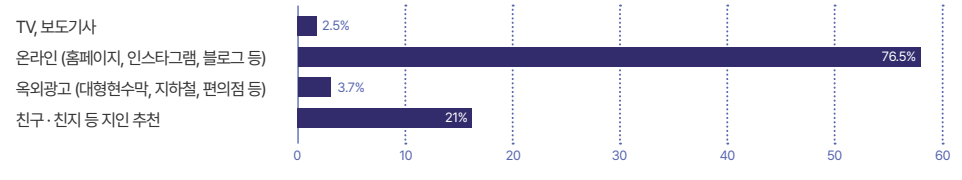
○ 주요 결과
- 응답자 정보

구분	정보
연령대	40대(39.5%) & 50대(24.7%) & 30대(22.2%) & 20대(11.1%)
성별	여(79%) & 남(19.8%)
거주지	서울(66.7%) & 인천, 경기(27.2%) & 전라(3.7%)
동행인	혼자(40.7%) & 가족(28.4%) & 친구(18.5%) & 단체(4.9%)

- 방문 동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 축제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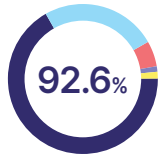


- 정보 인지 경로: 온라인 > 지인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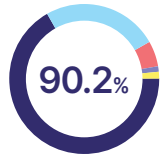


3. 통합홍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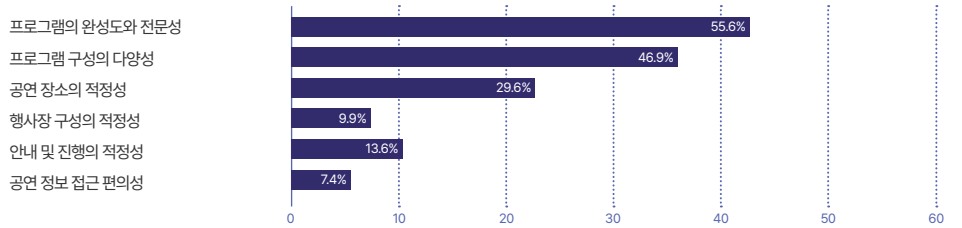
• 참여 쇼케이스 프로그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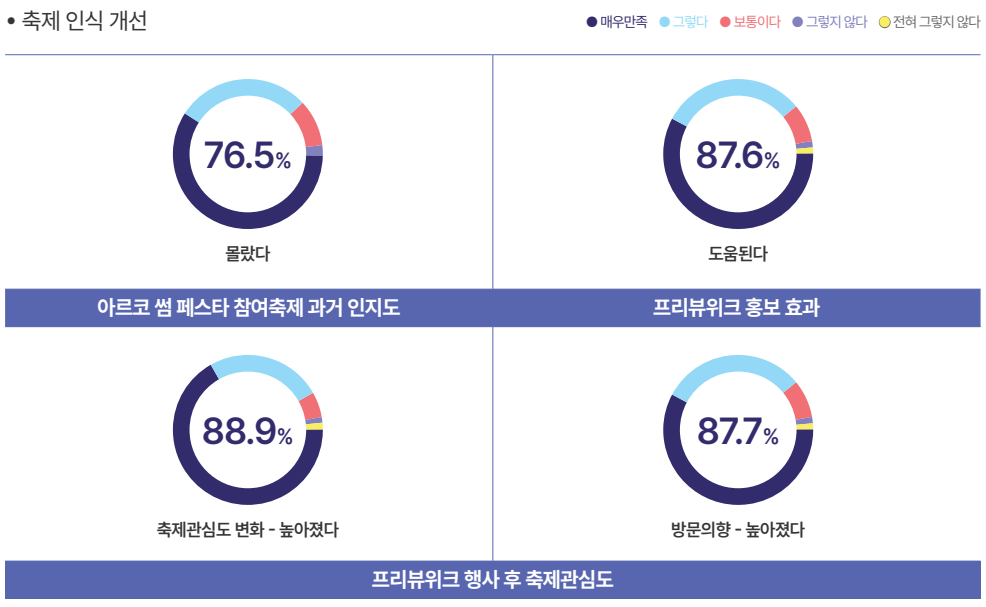
• 프리뷰위크 전반적인 만족도



• 만족한 부분: 완성도와 전문성 > 다양성



• 축제 인식 개선



3-2. 팝업 이벤트

(1) 추진 방향

• 대학로를 거점으로 관객과 축제를 직접 연결하는 현장 중심 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별 축제 홍보와 관객 참여를 확대하고, 축제 인지도 및 현장 접점을 강화함

○ 주요 결과

구분	내용	결과
행사운영	2025. 7. 12.(토) ~ 8. 23.(토) 총 6회	개별 축제 홍보, 이벤트
관객 참여 결과	참여 관객	약 3,000명 (부스 방문 및 리플렛 홍보)
	이벤트 참여자	약 1,200명

(2) 행사 개요

○ 목적: 대학로를 거점으로 7~8월 시기별 축제 홍보 부스 운영
○ 기간: 2025. 7. 12.(토) ~ 8. 23.(토), 매주 토요일
○ 시간: 13:00 ~ 19:00
○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
○ 주요 내용: 아르코 썸 페스타 개별 축제 홍보, 이벤트

(3) 프로그램

○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제목	아썸페에게 공연 추천받고, 선물 받자
참여 방법	1. ASF SNS(인스타그램) 팔로우 2. 룰렛돌리고 추천 축제 찾기 3. 홍보부스에서 추천받은 축제 정보 확인 4. 상품 교환처에서 가고 싶은 축제 대답하고 선물 수령
상품	1등: 방석 + 손수건 + 거울 키링 2등: 손수건 + 거울 키링 3등: 거울 키링
운영인력	총 4인







4. 언론 홍보

4-1. 추진 방향

(1) 추진 방향

• 기자간담회 운영과 보도자료 제작·배포, 인터뷰 및 이슈별 테마 기획을 통한 기획기사 노출 확대로 언론 노출 극대화

ㅇ 주요 결과

구분	내용	운영결과		비고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	1회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매일경제, KBS, SBS 등 총 29매체 (기자 37명)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작·배포	7회		관객
언론 보도	신문 지면	총 173건	15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코리아헤럴드 등
	방송 보도		2건	SBS, 연합뉴스TV 등
	온라인 보도		154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 외 온라인 뉴스 매체
	매거진 노출		2건	시어터플러스

4-2. 기자간담회

ㅇ 일시: 2025. 6. 23.(월) 11:00 ~ 12:00

ㅇ 장소: 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1층 대강당

ㅇ 참석자: 정병국 위원장, 박정자 배우, 백윤학 지휘자, 축제협의체 대표자

ㅇ 참석매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국민일보, 매일경제, KBS, SBS 등 총 29개 매체(37명 기자)

ㅇ 세부 일정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1:00~11:03 (3′)	사회자 인사	정창호 팀장
11:03~11:07 (5′)	아르코 썸 페스타 취지 및 탄생 배경 소개	정병국 위원장
11:08~11:35 (27′)	장르별 축제 소개	연극 축제 소개 연극 축제 대표자 인사	송승은 총괄PM 및 축제 대표자
		무용 축제 소개 무용 축제 대표자 인사	
		음악 축제 소개 음악 축제 대표자 인사	
		전통예술 축제 소개 전통예술 축제 대표자 인사	
	프리뷰위크 소개		
11:35~11:45 (10′)	참여 예술가 인터뷰		박정자 배우 백윤학 지휘자
11:45~11:55 (10′)	질의응답		정병국 위원장 류재수 본부장 송승은 총괄PM
11:55~12:00 (5′)	포토타임		
12:00~13:00 (‘60)	오찬		













4. 언론 홍보

4-3.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

○ 시기별 보도자료 배포 목록

구분	일자	제목	주요 내용
1차	2025. 6. 10. (화)	'세상의 모든 공연축제'를 하나로 연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썸 페스타' 첫 개최	• 통합 브랜드 런칭 기사
2차	2025. 6. 23. (월)	하나로 연결된 공연예술축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썸 페스타'시작	• 아르코 썸 페스타 기자간담회 • 축제 의미, 장르별 축제 라인업 소개 및 프리뷰위크 안내
3차	2025. 6. 30. (월)	'아르코 썸 페스타' 1차 라인업, 7월 무대 출격 장르별 대표 축제,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관객과 만난다	**2025. 7. 1.(화) ~ 7. 24.(목) 개막 축제** • 줄라이 페스티벌 • 대한민국연극제인천 • 아츠인탱크무용축제인코리아 • 부산발레페스티벌
4차	2025. 7. 7. (화)	7월의 시작, 대학로 물들인 공연 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 프리뷰위크로 화려한 개막!	• 프리뷰위크 현장 스케치
5차	2025. 7. 22. (화)	세대와 세계를 연결하는 공연예술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 2차 라인업, 여름 무대 개막!	**2025. 7. 24.(목) ~ 8. 1.(금) 개막 축제** •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 늘푸른연극제 • 품앗이공연예술축제 •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밀양
6차	2025. 8. 6. (수)	공연예술축제로 떠나는 여름 바캉스 '아르코 썸 페스타' 3차 라인업, 무용·전통음악 축제 풍성	**2025. 8. 12.(화) ~ 8. 22.(금) 개막 축제** • 춘천공연예술제 • 대한민국대학국악제 • 생생우리음악축제 • 창무국제공연예술제
7차	2025. 8. 19. (화)	베르나르 베르베르부터 마당극까지, 여름 무대의 피날레... '아르코 썸 페스타' 4차 라인업, 3色 공연축제 공개	**2025. 8. 22.(금) ~ 9.5.(금) 개막 축제** •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 •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 대한민국마당극축제
8차	2025. 8. 26. (화)	한국 무용의 스펙트럼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 마지막 무대 장식	**2025. 9. 3.(수) ~ 9. 25.(목) 개막 축제** • 대한민국무용대축제

4-4. 기획기사

○ 기획기사 목록

구분	내용	인터뷰이 / 일정	매체 및 게재일
축제별 인터뷰	대한민국연극제	• 홍보대사 전무송, 장영남 배우	중앙일보 2025. 6. 23.(월) 지면 게재
	줄라이 페스티벌	• 백윤학 지휘자 (2025. 6. 23. 인터뷰)	서울신문 2025. 7. 8.(화) 지면 게재
	한국을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 이수빈 무용수 (2025. 7. 16. 인터뷰)	시어터플러스 2025. 8월호 게재
공연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시리즈	청소년 연극 축제	• 청공축제 전영준 이사장, 이재희 학생 •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손정우 이사장 **2025. 6. 23.(월) 인터뷰**	매일경제 2025. 6. 25.(수) 게재 완료
	해외교류 무용축제	• 창무국제공연예술제 김매자 위원장 •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장광열 제작감독 **2025. 7. 14.(월) 인터뷰**	매일경제 2025. 7. 23.(수) 게재
	전통으로 지역을 잇는 마당극 축제	•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김창곤 기획실장 • 대한민국 마당극축제 손재오 이사장 **2025. 8. 11.(월) 인터뷰**	매일경제 2025. 8. 19.(화) 게재
	전통예술축제	• 대한민국대학국악제 김주섭 예술감독 • 생생우리음악축제 김정오 대표 **2025. 8. 8.(금) 인터뷰**	서울신문 2025. 8. 11.(월) 게재
	대한민국무용 대축제	• (사)대한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 • (사)한국춤협회 윤수미 이사장 • (사)한국현대무용협회 김형남 이사장 **2025. 8. 25.(월) 서면 인터뷰**	서울신문 2025. 8. 28.(목) 게재
성료	아르코 썸 페스타 성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아르코 썸 페스타 성과 및 발전 방향 **2025. 10. 14.(화) 인터뷰**	서울신문 2025. 10. 16.(목) 게재

III. 통합 홍보

4. 언론 홍보

4-5. 보도 결과

○ 주요 지면기사

2025. 6. 23. - 중앙일보 020면 문화
대한민국연극축제 인천 홍보대사 전무송, 장영남 배우 인터뷰

The JoongAng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020면 문화

토니상 수상이 달군 '연극 전국체전'

대한민국연극제 얼굴 전무송·장영남
각각 명예대회장·홍보대사 맡아
"연극제, 즐거운 놀이와도 같아
어려움 겪는 이들, 행복 느끼길"





'더 파더'에서 치매 노인을 연기한 전무송(왼쪽)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 명예대회장, '꽃의 비밀'에서 술고래 주부를 연기한 장영남 홍보대사. [사진 스튜디오반·젤엔터테인먼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으로 국내 공연계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극계 최대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음 달 5일부터 27일까지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열린다. 1983년 시작돼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대한민국 연극제는 서울 대학로뿐 아니라 각 지역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대거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다. 2005년부터는 해외 초청 공연을 도입해 글로벌 협업 기반도 넓혀 가고 있다.

43회를 맞는 올해는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주제로 인천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명예대회장과 홍보대사를 맡은 전무송(83)과 장영남(51) 배우를 지난 1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라운지에서 만났다. 이들은 "사람과 사람이 온전하게 그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극은 굉장히 값진 일"(장영남)이라며 이번 연극제가 여러 어려움 속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무송과 장영남은 제43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전무송은 지난 1964년 연극 '춘향전'으로 데뷔한 이래 연극·방송·영화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대한민국 대표 국민 배우. 그는 40년 넘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연극제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전무송은 "연극제를 한다고 했을 때 '먹고 살기도 바쁘다'며 반대가 있어 결국 개막도 못 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당시 크게 실망했었는데 후배들이 열심히 노력해 연극제를 만들고 이어오고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극제는 놀이"라며 "사람들이 놀이를 통해 즐거워하면서 행복감을 찾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숨 돌리며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와 미래의 엄마 역할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장영남은 1995년 극단 '목화'에 입단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활동을 시작한 연극계 베테랑이다. 그는 "30년 전 극단 생활을 시작했을 때 연극에 대한 저의 마음과 후배들의 열정이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그 마음과 열정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에 홍보대사를 맡았다"고 말했다.

둘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연극의 '치유력'이 더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전무송은 "무엇인가에 쫓기고 각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다"며 "연극을 보는 시간만이라도 여유를 찾고 또 연극이 전하는 이야기에 감동하며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한 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두 배우지만 연극이 갖는 의미는 또 다르다. 전무송은 "연극을 처음 배울 때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연극배우를 하면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풀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장영남은 "연극 무대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도망갈 곳도 없다"며 "그런 무대가 저를 더 엄격하고 또 뜨겁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연극과 공연계가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전무송은 "제가 연극을 했던 60년 젠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연극을 왜 하나'라던 시절에도 꾸준히 공연을 이어왔고 이제 한국 작품이 아카데미상을 타고 토니상을 받는 시대가 됐다"라고 했다. 실제 소극장 고사 위기와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한국 연극계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극 티켓 판매액은 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늘었다. 올해도 인기 스타들의 연극 무대 복귀 등에 힘입어 주요 대형 작품은 90%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보였다.

그는 최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라고 반겼다. 장영남도 "공연 분야에서도 한류가 통한다는 생각에 기뻤다"라며 "공연에 도전하는 신진 예술가들이 더 큰 희망과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이번 연극제에는 16개 시·도에서 각각 선정된 16개 작품이 선보인다. 서울 극단 광대모둠의 '대한뻔전', 부산 극단 누리예의 '어둠상자', 제주도 퍼포먼스단 몸짓의 '만선' 등이다. 한국-북마케도니아 합동공연, 연극인 100인 토론회 등의 관련 행사도 펼쳐진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2025. 6. 24. - 한국경제 A26면 문화
아르코 썸 페스타, 7월 개막

아르코 썸 페스타, 7월 개막

연극·무용 등 17개 축제 진행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아비뇽'이나 '에든버러'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연극계의 대모'로 불리는 박정자 배우는 23일 서울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아르코 썸 페스타(ARKO SUM FESTA)'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는 7~9월 전국 각지에서 막을 올리는 아르코 썸 페스타가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과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다.

아르코 썸 페스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사업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여러 축제를 하나의 신규 통합 브랜드로 묶은 것이다. 올해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네 개 분야에서 17개 축제가 참여한다. 축제 간 시너지를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로 연극인의 업적을 기리는 '늘푸른연극제'는 다음달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열린다. 배우 박정자가 이번 연극제에 참여해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공대 출신 지휘자로 유명한 백윤학 영남대 음대 교수가 함께하는 '줄라이 페스티벌'은 다음달 1~31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등에서 개최된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혁엣농크! 뮤직 페스티벌'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에서 열린다. 베르베르는 신작 소설 <키메라의 땅>을 토대로 대본을 집필하고 내레이터로 직접 무대에 설 예정이다. 흥미로운 그의 이야기에 작곡가 김택수의 음악이 더해지는 독창적 무대가 펼쳐진다. 허세민 기자

2025. 6. 24. - 서울경제 A28면 문화
전국 17개 공연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서 한자리

서울경제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A26면 문화

전국 17개 공연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서 한자리

연극·무용·클래식 등 묶어 시너지
내달 5~6일 대학로서 '프리뷰 위크'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대표 공연예술 축제를 하나로 묶은 '아르코 썸 페스타'가 올 여름 첫 선을 보인다. '세상의 모든 공연축제'를 슬로건으로 단생한 아르코 썸 페스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공연예술축제 지원 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축제들을 하나로 묶은 통합 브랜드이다.

정병국 아르코 위원장은 22일 '아르코 썸 페스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축제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축제를 하나의 이름 아래 모아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개별 축제의 개성은 살리되 장르와 지역을 아우르는 협업 기반을 구축해 관객과의 접점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첫 축제에는 아르코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전국 17개 축제가 참여한다. 장르와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연극 축제로는 연극계를 이끄는 원로 배우들이 주축이 되는 '늘푸른연극제'부터 전국 대표 국단들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는 43년 역사의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등이 포함된다. 클래식 공연으로는 7월 한 달 간 클래식 작곡가를 집중 조명하는 '음악이 페스티벌', 지역 중심의 예술 활동을 담은 '대구국제현대음악제' 등이 준비됐다.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적 축제 '혁엣농크! 뮤직 페스티벌'에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참여해 문학과 음악이 만나는 독창적인 무대를 준비 중이다. 무용계의 다양한 측을 연결하는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시리즈도 함께 펼쳐진다.

본 행사에 앞서 7월 5~6일 이틀간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본, K예공원일 대에서는 '프리뷰 위크'가 열린다. 축제 하이라이트 쇼케이스와 워크숍, 현장 이벤트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경미 기자

2025. 6. 24. - 서울신문 030면 문화
전국 17개 축제를 하나로…'아르코 썸 페스타' 개막

'서울신문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030면 문화

연극·무용·음악·전통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아우르는 통합형 축제가 올여름을 물들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오는 7월 4일부터 두 달간 '아르코 썸 페스타'를 개최한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17개 축제를 처음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묶었다.

정병국 아르코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해 아르코가 지원하는 축제가 45개인데 모두가 역량이 충분하지만 빛을 발하지 못했다"며 "각 축제의 특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해 시너지를 키워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통합 축제가 취지대로 성과를 내고 장점이 많다는 결과를 얻어내면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연극 부문에서는 올해 43회를 맞은 대한민국연극제를 비롯해 늘푸른연극제와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말양,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 등이 세대를 연결한다. 뮴앗이공연예술축제, 대한민국마당극축제는 지역 공동체와 호흡하는 무대다.

늘푸른연극제에서 '꿈속에선 다정하였네'(한태숙 연출) 무대에 오르는 배우 박정자는 "우리는 (프랑스) 아비뇽 축제나 (영국) 에든버러 축제만 바라보는데 이렇게 하나로 된 축제를 올릴 수 있는 건 많은 예술인에게 좋은 기회"라며 "발품을 팔아서라도 모두 보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용 부문엔 국제 교류형 축제인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인 코리아, 한국을 빛내는 해외 무용스타 초청공연, 창무국제공연예술제를 비롯해 부산발레페스티벌, 춘천공연예술제 등 지역 기반 축제가 참여한다. 춤&판 고무신춤축제, 대한민국무용대상, 생생 춤 페스티벌 등 대한민국 무용대축제 시리즈도 동참한다.

오랫동안 한국 춤 창작에 매진해 온 김매자 창무예술원 원장은 "그동안 축제를 열며 외롭고 협소하다 느꼈는데 모두가 우리 축제를 위해 뭉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울러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줄라이 페스티벌, 힉엣농크 뮤직 페스티벌(이상 음악 부문), 대한민국대학국악제, 생생우리음악축제,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이상 전통예술 부문) 등 음악의 실험성과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 담긴 축제도 함께 한다.

본행사에 앞서 7월 5~6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등에선 '프리뷰 위크'를 연다. 자세한 내용은 썸 페스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여경 선임기자

4. 언론 홍보

2025. 6. 25. - 매일경제 A27면 문화

공연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청소년 연극 축제'

매일경제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A27면 문화

"질풍노도 10대 스트레스, 연극 무대서 확 풀어요"

17개 축제 묶은 '아르코 썸 페스타' 내달 개막

청소년 연극 만드는 3인방
방황하는 시기 예술이 숨쉴틈
직접 대본 쓰고 무대서 연기
창작 통해 치유 효과 극대화

잠재력 끌어낼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세대 즐기는 場 기대



청소년 연극 축제를 만드는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오른쪽부터), 전영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채희 학생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채희 씨(20·상명대 연극전공)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연극 '폰만이' 를 보고 진로를 결정했다.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연극을 통해 사회문제를 건드리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이 연극은 2003년 태어난 '월드컵둥이'들의 이야기로 학교에서 대포폰을 파는 폰팔이 사장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미나,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등해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이씨는 "청소년 대상 연극이라고 해서 꼭 교육적인 주제를 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극의 주제는 대상이 성인이냐 청소년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향후 사회 문제를 다루는 청소년극을 만들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음달 29일 개막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축제(이하 청공축제)'에서 청소년 낭독공연 '스프레이' 연출을 맡아 현장 연습 중이다. 앞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청공축제 청소년 평가단으로서 전문단체의 연극을 보고 평점을 주는 활동도 했다.

이씨를 비롯해 전영준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을 서울 대학로에서 함께 만났다. 전 이사장은 청공축제를, 손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일양을 총괄하고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축제를 하나로 연결한 새로운 통합 브랜드 '아르코 썸 페스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름 7·8월에 걸쳐 전국 17개 축제가 참여한다.

청공축제는 7월 29일~8월 5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꿈밭극장에서,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일양은 8월 1~12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등에서 열린다. 청공축제는 청소년이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것에 초점을 둔 반면,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는 청소년이 직접 연극 창작 과정에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 이사장은 청소년 연극이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연극의 표현 양식은 어린이와 성인 연극과는 좀 달라야 한다. 청소년 연극은 수위를 신중하게 조절하면서도 예민한 문제를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과감히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한다. 청소년 연극의 표현이 성인 연극에선 좀 진부한 것일 수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청소년 연극의 다양한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나온이후청소년들이미래에무슨 지입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이럴 때 예술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숨 쉴 틈을 만들어주고 잠재력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 연극이 '제격'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창작극은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다. 다소 기칠지 몰라도 자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극본을 쓰고 무대 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치유 효과가 분명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축제 참여자들은 대부분 예비 연극인인 셈인데 연극 창작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극장에서 전문 연극인들과 작업하며 협업과 소통을 배운다"고 덧붙였다.

세 사람에게 축제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손 이사장은 "우리 축제가 '연극 도시' 일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고 믿는다"며 "프랑스 아비뇽 같은 유명 해외 축제는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 열려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결국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을 관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아르코 썸 페스타'에서 여러 축제와 함께 어울리며 나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통합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축제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축제의 청소년들이 '아르코 썸 페스타'의 다른 축제에 참석해 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접해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유에 기자

2025. 7. 24. - 매일경제 A27면 문화

공연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해외교류 무용축제'

"수십년간 우리 춤으로 세계와 소통… 한류 밑거름됐죠"

'창무예술제' 김매자·'해외발레스타축제' 장광열

한국 무용가와 해외 교두보 자처
자비 들여 국제무용제 이곤 독심
올해 '아르코썸 페스타' 참가해

우리 기량 알리려면 교류 필수
예술가들 네트워크 이어져야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축제 통합 기획 '아르코 썸 페스타'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온 국제 무용 축제를 선보이는 김매자 (왼쪽) 와 장광열.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아르코 썸 페스타' 무용 축제 쇼케이스에서 발레 '라 바이데르' 중 니키아 독무를 춰 보이는 무용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반바닥에 손수여송이 얹었다면 지금 K팝의 세계적 인기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 창작무용의 대모이자 1993년 창무국제공연예술제(이하 창무예술제)를 열어 거의 매년 역사를 이어온 무용가 김매자(82)는 "창상 내 목적은 우리 춤을 해외에 파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한국 전통 춤으로도 이 시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아직 '국제 예술제'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자비를 들여 빚도 제기며 했죠. 놀을 수가 없어 30년 넘게 지속해 왔습니다."

한국 춤의 생생한 현장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올여름 축제 형태로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가 새롭게 기획한 기초공연 예술축제 통합 브랜드 '아르코 썸 페스타'를 통해 무용·연극·음악·전통 등 장르별 축제들이 한 데 모였다. 무용 분야에 선정된 10개 축제 중에선 단연 만이 주 두 주제가 눈에 띈다. 올해 31회째를 맞는 창무예술제와 22회째인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이하 해외무용스타)이다.

"해외무용스타'의 경우 공연예술 전문기자 출신이자 무용 평론가 장광열(67)이 2001년 직접 기획한 이래 발레를 통한 국제 교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는 "해외 발레단에서 활동하는 무용수가 국내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시절이었다"며 "그들이 고국에서 최상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국내외 유망주들도 자극받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매자와 장광열은 "국제 교류는 우리나라 무용의 수준과 자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한다. 장광열은 "보국에 초청돼 특별 공연을 열고 나면 해당 발레단 안에서 무용수의 위상도 올라가더라"며 "현지 안무가와 우리나라 관계자들도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된다"고 했다.

국제 교류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연'이다. 예술가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가 무용계 미래에도 중요하다. 예컨대 일본 출 '부토'를 대표하는 무용단 '신카이 주쿠'는 첫회 창무예술제 때부터 이번까지 총 8회째 초청에 참여했다. 축제 측의 어려운 제정 여건을 생각하면 초청하기 힘든 상대지만, 올해 한국 무용가와 해외 교두보 자처

김매자와의 오랜 우정 덕에 직접 비용 문제를 해결해서 온다. 김매자는 "인건비으로 출석의 타놓는 사람 간 신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광열은 자신이 기자 시절 김매자를 등해 만났던 무용계 거목들과의 일화도 들려줬다.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 아직 우리나라와 남시 소련이 국교도 맺지 않았을 때다. "당시 러시아 명문 볼쇼이 발레단의 예술감독 유리 그리고로비치는 김 선생님 댁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예술계 인사들을 모아 변라게 대화할 수 있게 하셨죠. 수교 후엔 그리고로비치와 국립발레단 사이에 다리를 놔줘 볼쇼이의 '스파르타쿠스' '백조의 요수' 등 주요 레퍼토리가 한국에 넘어올 수 있었어요. 인간적 교류 덕분에 애정을 갖고 도와온 겁니다."

그러나 순수 공연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중의 관심, 기업의 후원은 늘 부족하다. 30여 년 동심을 이어온 김매자도 2014·2015년 2년 정도 축제를 내리놓은 적이 있다.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못하겠"던 상황이었다. 김매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산 이진백 당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이 2년간 지원해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렵다. 장광열은 "정부가 행사의 규모나 경쟁력을 평가해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형평성에만 끌려하니 제대로 성장한 단체나 축제가 없다"며 "일본·대만과 비교해 우리나라에 훌륭한 예술기가 많은데도 민간 예술단이 적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일단은 아르코 썸 페스타를 통한 축제 간 시너지 효과가 관객 호응도 일으키길 기대한다. 이들은 "작은 축제들이 모여 통합 홍보가 가능해진 점이 정책인 변이 많다"며 "매년 꾸준히 이어져 축제끼리 관람권 할인을 해준다거나 인적·재정적 지원을 늘려주는 등 더 깊은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해외무용스타는 8월 2~3일 서울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영가리국립발레단 아스빈, 러시아 미하일롭스키 발레단 임서린, 윤해 또한 발레싱쿠르에서 우승자 박윤재 등을 초청해 갈라쇼를 벌린다. 이날 30일엔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도 공연한다. 창무예술제는 다음달 22~30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세종 예술의전당 등에서 일본 신카이 주쿠, 호주 루이스 메이저 등 세계적 무용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젊은 안무가 작품을 선보인다.

정수빈 기자

2025. 8. 11. - 서울신문 025면 문화

공연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전통예술축제'

서울신문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025면 문화

"K팝만큼 매력 넘치는 전통음악… 정부의 관심·지원 커지길"

전통예술축제 기획자들 인터뷰



김주섭(왼쪽) 사단법인 문화문 대표와 김정오 문화발전소 열터 대표는 젊은 국악인들의 경연대회 '대한민국대학국악제'와 경기 화성 봉담 공동체와 소통하는 '생생우리음악축제'를 각각 기획하며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올해 전국의 공연예술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아르코 썸 페스타'가 처음 시작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개별 운영되던 축제들이 한 이름으로 협업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돕는 한편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축제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만난 '대한민국대학국악제'의 김주섭(사단법인 문화문 대표) 예술감독은 아르코 썸 페스타에 대해 "우산 속에 있는 듯하다"면서 "홀로 하면 외롭고 쉽게 지치는데 정부 기관이 관심을 갖고 외곽 지원을 해주니 든든하다"고 부연했다.

14회를 맞는 대한민국대학국악제는 국내 유일의 창작 국악 경연대회로, 젊은 국악인 사이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관문으로 평가된다. '조선팝'으로 활약하는 서도밴드, 해외 팬덤이 공고한 상자루,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김진아 등을 배출했다.

이날 본선 진출 팀을 심사했다는 김감독은 "예전에는 40팀 안팎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19팀 정도에 그쳤다. 아마도 올해 우승 상금(500만원)이 절반으로 줄어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탈어놨다. 저조한 참여가 아쉽긴 하지만 신선한 국악의 탄생을 희망하며 오는 14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소나무홀에서 열리는 본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생생우리음악축제'를 기획한 김정오 문화발전소 열터 대표도 "처음에는 공연할 만한 공간을 찾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역 공동체가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면서 "우리 음악은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도 한 번 경험하면 누구나 좋아하게 되는 매력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생생우리음악축제는 경기 화성의 봉담읍에 있는 책방·공원·아틀리에 등 지역 문화공간에서 열리는 국악 공연이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 음악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대표는 "전통예술을 매개로 '함께'와 '공동체'를 점목할 방법을 꾸준히 고민했다. 작은 공간에서 표정,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때 그 소통이 더욱 잘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오는 22일 전야제를 열고 23~24일 본축제로 나눠 국악 예술가 13팀이 신명 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두 기획자는 전통음악의 가능성을 생생히 목격했다. 하지만 K팝의 인기가 절정을 찌르는 이 순간에도 전통음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적은 게 현실이다. "통합 브랜드로 묶여 같은 장르의 축제들 하는 사람들과 고충을 나누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데 위안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여경 선임기자

2025. 8. 19. - 매일경제 A24면 문화

공연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전통으로 지역을 잇는 마당극 축제'

"관객·배우 주거니 받거니… 마당극은 소통의 예술"

'아르코 썸 페스타' 참여 손재오·김창곤

대한민국마당극축제에선
'착한 사람 김상봉' 등 25편
농촌우수마당극콘진치선
'기뻐서 죽사오매' 등12편

청중 반응 따라 측흥변주
삶의 희로애락 펼쳐 매력
전통이지만 현재 이야기


손재오 대한민국마당극축제 이사장(오른쪽) 과 김창곤 농촌우수마당극콘진치 총괄 기획실장은 "마당극의 형식은 전통적이지만 이야기는 현재적"이라고 소개했다. 한주형 기자


작년 개최된 대한민국마당극축제의 한 장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처음 출범시킨 '아르코 썸 페스타(ARKO SUM FESTA)'는 전국 17개 공연예술축제를 단일 브랜드로 묶는 새로운 시도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다양한 무대예술 축제가 서울·지방 곳곳에서 이어져 왔는데, 아르코 썸 페스타는 이런 수많은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관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축제가 있으니 '대한민국마당극축제'와 '농촌우수마당극콘진치'다. 전통 마당극의 맥(脈)을 잇는 두 축제는, 공교롭게도 마당극계의 '30년 지기'인 손재오 대한민국마당극축제 이사장과 김창곤농촌우수마당극콘진치 총괄기획실장이 각각 진두지휘하는 중이다.

마당극계 마당발인 두 사람을 최근 서울 종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손 이사장은 올해 대한민국마당극축제의 '아르코 썸 페스타' 합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아르코 썸 페스타'란 틀 속에서 처음 함께합니다. 지역민들에겐 잘 알려졌지만 중앙에선 덜 주목받던 마당극이 전국적 홍보와 협업 분위기를 타게 되니 기대와 신명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하하."

한국 전통 마당극은 다른 무대예술과 다소 다르게 인식돼 왔다. 사방이 트인 무대적 특성 때문이다.

서양 무대극은 관객과 무대를 하나의 액자(frame)로구분하는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근대 이후 우리가 흔히 아는 극장은 이런 형태로만 꾸며졌다. 반면 한국의 전통 마당극은 인위적인 구획이 적고, 배우와 관객의 분절이 없다. 장소가 주는 제약이 적으며 무엇보다도 마당을 둘러싼 관객과 소통이 가능해 배우들의 즉흥적 변주가 가능해 박진감이 넘친다.

김 실장은 "마당극은 들여다볼수록 더 매력적인 장르"라며 30년 세월을 끌어놓는다.

"마당극에선 흔히 '주거니 받거니'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마당극만의 본질적인 매력입니다. 형식은 전통에 기반하지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니 '낡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당극은 얼마나 현재적인 작품들이 소개될까. 올해 대한민국마당극축제에선 25편의 작품이 소개되는데 특히 '착한 사람 김상봉'에 눈길이 간다.

주인공 김상봉은 주변인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산인이다. 그는 남을 속이지 않고,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을 당해도 꼭 놀러 참는다는 점이다. 착함이 곧 '무력함'으로 이해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선악과 윤리를 묻는 작품이다.

"이데아와 현실을 동시에 끄집어내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예술이 마당극이에요. 한번 보시면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층층히 현재적인 이야기임을 눈치채실 겁니다. 우리 마당극의 타깃은 젊은층이고, 극단에도 젊은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당극계에서 30년 넘게 있었는데 마당은 언제나 '거친 현장'이었지만 그거친 매력이 절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손 이사장)

12편의 작품이 소개되는 농촌우수마당극콘진치에선 '기뻐서 죽사오매'에 눈길이 간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과 매국의 의미를 되짚는 작품"이라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겉으론 애국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반대로 당시엔 매국노라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공동체를 위한 희생자가 되고 마는 아이러니가 담긴 작품이에요. 진정한 애국이 뭐고, 또 왜곡된 애국은 뭔지를 고민하는 작품이에요. 광복 80주년을 맞이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마당극을 이끌어온 두 예인(藝人)에게 "왜 전통예술은 여전히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손 이사장은 "전통은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다시 쓰는 것"이라고 답했다. "마당극은 과거 형식을 빌려 오늘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괴리되지 않은 예술이죠." 그 곁에서 김 실장 역시 "마당극은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닮은 예술"이라며 말을 이었다.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의 희로애락은 같으니까요. 마당극은 살아온 무대 위에서 웃음과 음음을 함께 나누는 가장 '인간적인' 무대입니다."

대한민국마당극축제는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광명시민운동장에서, 농촌우수마당극콘진치는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청주 초정행궁에서 개최된다.

김유태 기자

4. 언론 홍보

2025. 8. 28. - 서울신문 024면 문화

공연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대한민국무용대축제'



서울신문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024면 문화

'아르코 썸 페스타' 대한민국무용대축제서 뭉친 3대 무용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첫선을 보인 통합 축제 브랜드 '아르코 썸 페스타'에서 대한무용협회, 한국현대무용협회, 한국춤협회는 '대한민국무용대축제'로 뭉쳤다. 왼쪽부터 '전국무용제 사전축제'(K-발레 월드스타 갈라), 생생 춤 페스티벌(임최종·함초롬×KYM Dance Project), 춤&판 고무신춤축제(송미숙, '징홍심류 바라승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예술축제 대통합, 그 마지막 무대는 '춤'

전국 축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 썸 페스타'가 28일 대한민국무용대축제가 포함된 5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발레·현대무용·한국창작춤·전통춤 등 무용의 전 영역을 담은 다섯 개 축제가 두 달간 이어진 썸 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한다.

국내 대표 무용 축제를 이끌어 온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이사장과 김형남 한국현대무용협회 이사장, 윤수미 한국춤협회 이사장은 "축제들이 서로를 비추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특히 무용은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로 인식되는데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관객과 소통할 기회도 넓히고 있다"며 썸 페스타의 의미를 짚었다.

세 협회는 대한민국무용대축제로 뭉쳤다. 대한무용협회는 '전국무용제 사전축제'(8월 30일·9월 5일)와 신진 무용가 육성 프로젝트인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9월 21~25일), '대한민국무용대상'(9월 25일·12월 11일)을 운영한다.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진행하는 축제는 '안무가 매칭 프로젝트 생생 춤 페스티벌'(9월 3~6일)이다. 한국춤협회는 '춤&판 고무신춤축제'(9월 4~6일, 24~25일)를 연다.

다양한 콩쿠르로 경쟁력 있는 무용수를 발굴해 온 대한무용협회로서도 통합 음직임이 반갑다. 조 이사장은 "국내외 무용수의 경연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번 통합이 무용수 간 화합과 교류를 확대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무용협회는 생생 춤 페스티벌로 안무가들에게 작품을 올릴 무대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국제협업 부문을 신설하고 세계 무용계 흐름을 담고자 했는데, 이번 통합이 무용수 간 화합과 교류를 확대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현대무용협회는 생생 춤 페스티벌로 안무가들에게 작품을 올릴 무대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국제협업 부문을 신설해 영국, 이탈리아의 동시대 감성까지 담아냈다. 김 이사장은 "안무가가 단순한 창작을 넘어 다양한 무용수와 함께 작업하며 다른 해석,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마주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면서 "대한민국무용대축제를 계기로 창작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다양성에 확장성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춤협회의 춤&판 고무신춤축제는 전통춤을 계승하는 한편 대학 무용단의 한국창작춤을 선보이며 '세대 통합의 장'이 되고 있다. 윤 이사장은 "한국 문화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요즘 다국어 홍보, 해외 축제와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춤의 예술성과 시대적 가치를 함께 누리도록 하고 싶다"면서 "각자의 길을 가던 예술장르를 한 공장에 모은 썸 페스타가 환경·지역·세대 교류 같은 사회적 의제를 담아내고 무대 언어를 넓히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여경 선임기자

2025. 10. 16. - 서울신문 025면 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인터뷰 아르코 썸 페스타 론칭 성과

"각 축제 뭉치니 더 세진 '썸 페스타' 에든버러처럼 세계로 '판' 넓힐 것"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17개 축제 통합 브랜드 론칭 성과
실험적 작품·창작산실 연계 계획

"한국 문화가 개별 장르로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예술 축제는 없다는 게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한 시도가 큰 호응을 받아 자신감을 얻었죠. 이 축제를 지속시키고 국내외에서 인정받도록 판을 다지는 시간으로 남은 기간을 알차게 써 보겠습니다."

1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집무실에서 만난 정병국(67)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아르코 썸 페스타'(썸 페스타)의 시작과 성과를 술술 풀어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썸 페스타'는 아르코 지원사업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 선정된 17개 축제를 묶은 통합 브랜드다.

정 위원장은 "예술단체들은 우리 예술인들의 역량이라면 한국에도 아비뇽이나 에든버러 같은 세계적인 축제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다들 동의한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는 의견이 갈리더라"면서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열어 답을 찾아갔다"고 떠올렸다.

성격과 장르가 제각각인 각지 축제를 하나로 통합한다니 "정체성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마케팅을 아르코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본격 '썸 페스타' 전에 축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프리뷰 위크'를 진행하고, 시기별·성격별 콘텐츠를 묶어 언론과 소셜미디어(SNS)에 노출했다.

축제 관련 관객과 참여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매우 만족'이 59.3%, '만족한 편'이 30.9%로, 긍정 응답이 90.2%였다. 특히 공연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첫 시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정 위원장은 '썸 페스타'를 성장시킬 순차적인 계획도 이미 세웠다. 프린지 페스티벌처럼 실험적 축제와 작품을 선보일 기간을 둬 관객 반응도 살펴보고, 아르코의 대표 공연예술지원사업인 '창작산실'과 차세대 예술인을 키우는 '청년예술가 도약지원'도 연계해 축제와 축제를 잇는 연결고리로 삼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게 몇 년 쌓이면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공연을 만나러 지역을 찾아가는 이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14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만난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첫선을 보인 '아르코 썸 페스타'를 두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통합 축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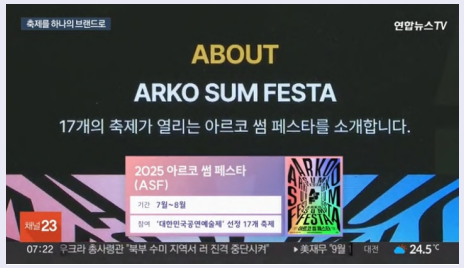
아직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이제 3년 임기 중 석 달만 남은 터라 아쉽지는 않을까. "'썸 페스타'의 지속력은 아르코 직원들이 추동해서 잘 갈 거라 믿습니다. 전문성은 우리 직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남은 기간 직원들에게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자신감을 갖고 일하라고 힘을 불어넣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여경 선임기자

ㅇ 방송

2025. 6. 26. - 연합뉴스TV

17개 예술축제 모았다…'아르코 썸 페스타' 첫선



2025. 7. 18. - SBS 12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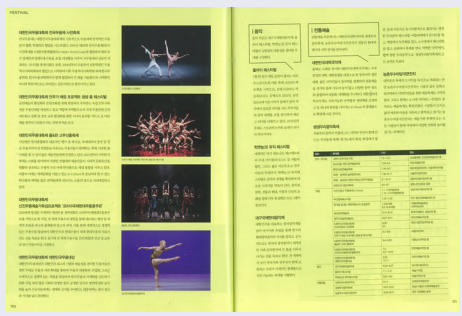
공연 축제 '아르코 썸 페스타' 개막



ㅇ 매거진

2025. 7월호 - 시어터플러스

아르코 썸 페스타 소개



2025. 8월호 - 시어터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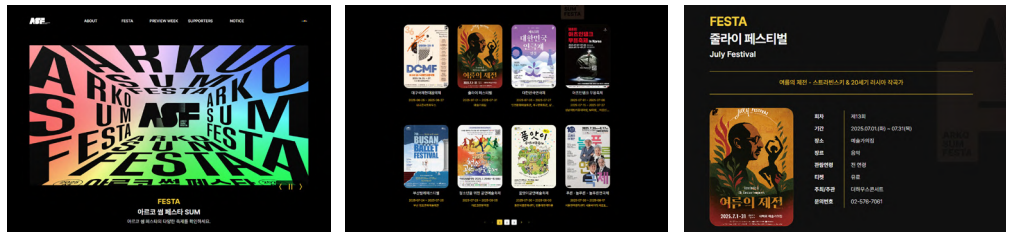
한국을빛내는해외무용스타초청공연 이수빈 무용수 인터뷰



5. 온라인 홍보

5-1. 홈페이지

○ 오픈 시기: 2025. 6. 9.(월)
○ 운영방법: 아르코 통합플랫폼 내 제작 (URL : arkosumfesta.kr)
○ 주요 내용: 아르코 썸 페스타 축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크롤형 홈페이지 제작



○ 사이트맵

홈 화면	ABOUT	FESTA	프리뷰위크	서포터즈	소식
축제개요 축제리스트 축제 MAP 전체일정표	브랜드영상 about ASF BI & 키비주얼 조직구성	17개 축제 - 키워드별 분류 - 축제별 소개	쇼케이스 워크숍	소개	공지사항

○ 홈페이지 방문자

• 방문수 총 5,369명 (일일 최대 747명 방문), 페이지뷰 111,140회
※ 집계기간: 2025. 8. 6.(수) ~ 9. 23.(화) 웹로그 설치 이후

• 홈페이지 유입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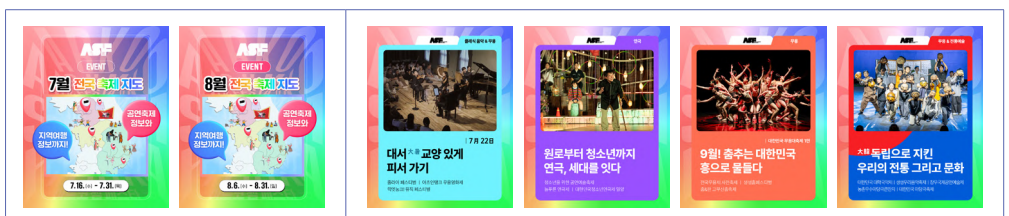


순위	유입 경로	방문수
1	No Referral (직접 접근)	3,116
2	기타	925
3	블로그 내 링크	726
4	신규 세션	366
5	포털 키워드 검색	99
6	포털 제휴사이트 링크	66
7	기타	71

5-2. 인스타그램

○ 운영기간: 2025. 5. 14.(수) ~ 9. 26.(금)
○ 콘텐츠: 총 64건
○ 팔로워: 총 2,207명
○ 총 조회수: 좋아요 20,248회, 노출수 539,229회, 도달수 305,369회
○ 주요 내용: 이벤트형 콘텐츠로 초기 관심을 형성하고, 프리뷰위크 및 큐레이션 콘텐츠를 연계한 단계별 홍보를 통해 축제 인지도와 관객 참여를 확대
○ 주요 제작 콘텐츠 (좋아요, 노출수 높은 콘텐츠)

업로드 일자	주요 내용	좋아요	노출수	도달수
5. 16.(금)	팔로우 이벤트	1,111	3,651	1,930
5. 30.(금)	아썸페를 잡아라 이벤트	248	64,009	26,550
6. 18.(수)	ASF 프리뷰위크 쇼케이스 라인업	775	4,905	3,113
6. 24.(화)	ASF 프리뷰위크 워크숍 라인업	1,031	4,765	3,032
7. 16.(수)	7월 전국 축제 지도 이벤트	1,007	3,456	1,402
7. 22.(화)	축제 큐레이션 (대서 교양있게 피서 가기)	447	3,416	1,496
7. 25.(금)	축제 큐레이션 (여름 바다 그리고 여름 공연)	459	3,789	1,305
7. 30.(수)	축제 큐레이션 (여름 방학! 아이와 문화 나들이)	1,154	7,836	3,365
8. 4.(월)	축제 큐레이션 (원로부터 청소년까지 연극 세대를 잇다)	828	7,104	3,294
8. 6.(수)	8월 전국 축제 지도 이벤트	1,408	7,489	3,045
8. 14.(목)	축제 큐레이션 (독립으로 지킨 우리의 전통 그리고 문화)	595	6,904	2,528
8. 27.(수)	축제 큐레이션 (9월 춤추는 대한민국 흥으로 물들다)	475	16,082	3,376
8. 29.(금)	축제 큐레이션 (무용 경연,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수를 발굴하다)	397	4,000	1,384



월별 축제 지도 | 큐레이션

III. 통합 홍보

5. 온라인 홍보

5-3. 유튜브 & 검색 광고

(1) 유튜브

○ 운영기간: 2025. 5. 14.(수) ~ 9. 26.(금)

○ 콘텐츠: 총 21건

○ 구독자: 1,390명

○ 총 조회수: 157,461회 | 도달수: 총 1,286,791회

○ 주요 내용: 아르코 썸 페스타 홍보 영상과 프리뷰위크 기간 참여 축제별 쇼케이스 숏폼 영상 제작·배포



(2)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 운영기간: 2025. 6. 20.(금) ~ 9. 30.(화)

○ 목적: 메인 검색 엔진 내 축제 노출 효과

○ 광고 성과

월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6월	560	243	43.39
7월	1,735	739	42.59
8월	1,161	562	48.41
9월	206	92	44.66
합계 / 평균	**3,662**	**1,636**	**44.7**

※ 클릭률은 월별 기준, 평균 클릭률은 전체 합산 기준으로 산출



5-4. 축제 방문 캠페인

○ 기간: 2025. 7. 1.(화) ~ 8.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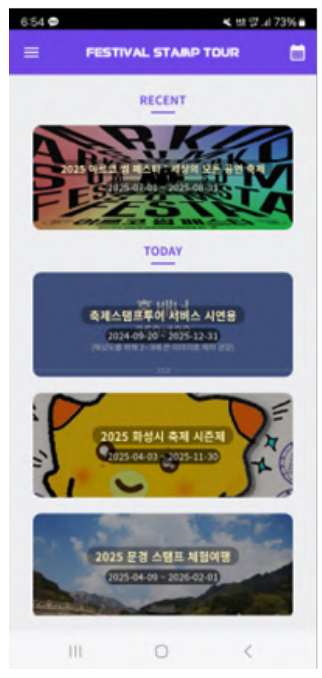
○ 목적: 축제 현장 방문 유도

○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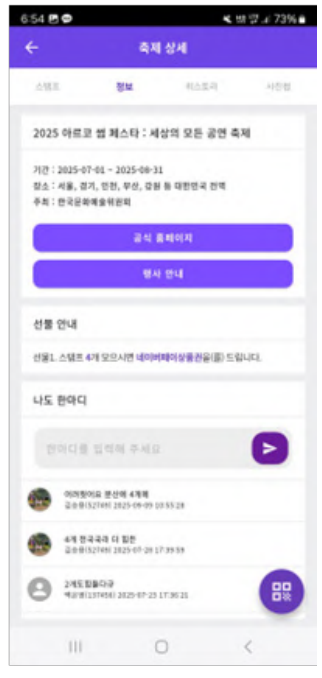
- 축제 현장(공연장 입구, 안내데스크 등)에 QR배너 설치
- 관객 방문 후 QR 인식, 온라인 스탬프 적립
- 4개 이상 스탬프 적립 시 선물 증정 이벤트 운영

○ 주요 결과

구분	운영 결과	내용
참여 축제	16군데	프리뷰위크, 참여축제 15군데
캠페인 참여	총 446명	축제 현장에서 스탬프 QR 촬영하여 참여







5. 온라인 홍보

5-5. 바이럴 홍보

(1) 주요 결과

○ 운영 기간: 2025. 6. 16.(월) ~ 9. 25.(목)

○ 운영 결과

구분	내용	업로드 건수	결과
카페 포스팅	방문X / 원고형	114건	조회수 28,604회 이상
블로그 기자단	방문X / 원고형	222건	공감수 총 6,127회
블로그 체험단	방문형 / 네이버 공식 인증 블로그 체험단	21건	공감수 총 1,528회
	방문형 / 준최적화 이상 블로그 체험단	46건	공감수 총 1,575회

(2) 카페 바이럴

○ 내용: 대형 맘카페, 지역 카페 바이럴 114건

○ 최다 조회수 포스팅 (2025. 10. 21.(화) 기준)

번호	카페명	축제명	작성일	조회수
1	대구맘라운지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25. 6. 18.(수)	1,058
2	대구 맘스파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25. 6. 18.(수)	1,017
3	대전세종맘스베이비	창무공연예술제	2025. 8. 5.(화)	622
4	서강맘	힉엣눙크 뮤직페스티벌	2025. 8. 5.(화)	556
5	동탄맘스모여라	품앗이공연예술축제	2025. 7. 14.(월)	541

(3) 블로그 바이럴

○ 내용: 네이버 블로그 기자단 222건, 파워블로거 21건, 준최적화 이상 블로거 46건 게재

○ 최다 조회수 포스팅 (2025. 10. 22.(수) 기준)

번호	카페명	축제명	작성일	조회수
1	대구맘라운지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25. 6. 18.(수)	1,058
2	대구 맘스파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25. 6. 18.(수)	1,017
3	대전세종맘스베이비	창무공연예술제	2025. 8. 5.(화)	622
4	서강맘	힉엣눙크 뮤직페스티벌	2025. 8. 5.(화)	556
5	동탄맘스모여라	품앗이공연예술축제	2025. 7. 14.(월)	541

6. 서포터즈 운영

6-1. 추진 방향

○ 내용: 축제 홍보 서포터즈를 선발 및 운영하여 축제 방문 유도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운영 결과

구분	내용	결과	비고
운영 인원	총 30명	수료율 100%	
콘텐츠 운영	총 336건	좋아요 수: 8,128건 댓글 수: 1,957건 영상 조회수: 19,045회	

6-2. 서포터즈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5년 6월 ~ 9월

○ 운영인원: 총 30명

○ 선정방법: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

○ 지원사항: 활동비, 교육, 우수활동가 시상, 활동증명서 등

○ 활동내용: 프리뷰위크 운영 지원, 담당 축제 사전 및 리뷰 홍보물 제작

○ 주요일정

- 5월 14일: 모집공고
- 6월 1주 ~ 2주: 서류 및 면접 심사
- 6월 3주: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6월 3주 ~ 8월: 캠페인 활동
- 9월: 해단식 및 우수 활동가 시상

6. 서포터즈 운영

6-3. 서포터즈 운영

(1)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 일시: 2025. 6. 20.(금) 14:00 ~ 17:00

○ 장소: 대학로 이음아트홀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담당
인사	14:00~14:05 (05′)	인사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서포터즈 활동 상세 안내	14:05~14:40 (35′)	아썸즈 소개 및 활동 계획 안내 축제 소개 및 담당 서포터즈 공개	김유경 PD
축제강연	14:40~15:25 (45′)	ASF 소개	송승은 총괄PM
쉬는 시간	15:25~15:40 (15′)	쉬는 시간 (미션)	
아썸즈 학당	15:40~16:15 (35′)	조별 프로그램 운영 - 축제 홍보 브레인스토밍 및 발표 - 아썸즈구호 만들기	김유경 PD
프리뷰위크 안내	16:15~16:30 (15′)	프리뷰위크 활동 안내	김유경 PD
마무리 및 촬영	16:30~16:50 (20′)	아썸즈선서 (구호 외치기)	
2부 활동	16:50~17:50 (60′)	아르코예술극장 투어	진용남 무대예술팀장











(2) 서포터즈 해단식

○ 일시: 2025. 9. 22.(월) 17:00 ~ 19:00

○ 장소: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담당
인사	17:00~17:03 (03′)	인사	김유경 PD
서포터즈 활동 돌아보기	17:03~17:20 (17′)	활동 돌아보기 - 오리엔테이션 - 프리뷰위크 - 축제별 리뷰 콘텐츠 소개 - 총 결과 보고 (설문조사 결과 등)	김유경 PD
서포터즈 콘텐츠 소개	17:20~17:30 (10′)	우수 서포터즈 콘텐츠 감상	김유경 PD
조별 활동	17:30~18:00 (30′)	방문 축제 관련 조별 소감 나누기	김유경 PD
쉬는 시간	18:00~18:10 (10′)		
활동 총평	18:10~18:15 (05′)	격려사 및 활동 총평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격려사	18:15~18:20 (05′)	격려사	송승은 총괄PM
수료증 수여	18:20~18:35 (15′)	수료증 수여	송승은 총괄PM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시상	18:35~18:50 (15′)	우수 서포터즈 시상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김도연 아이디어랩 대표
기념사진	18:50~18:55 (05′)	기념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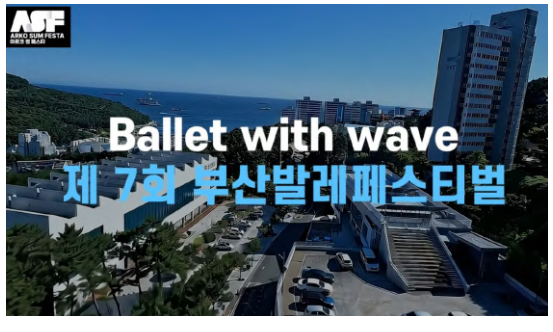
6. 서포터즈 운영

6-4. 서포터즈 콘텐츠 운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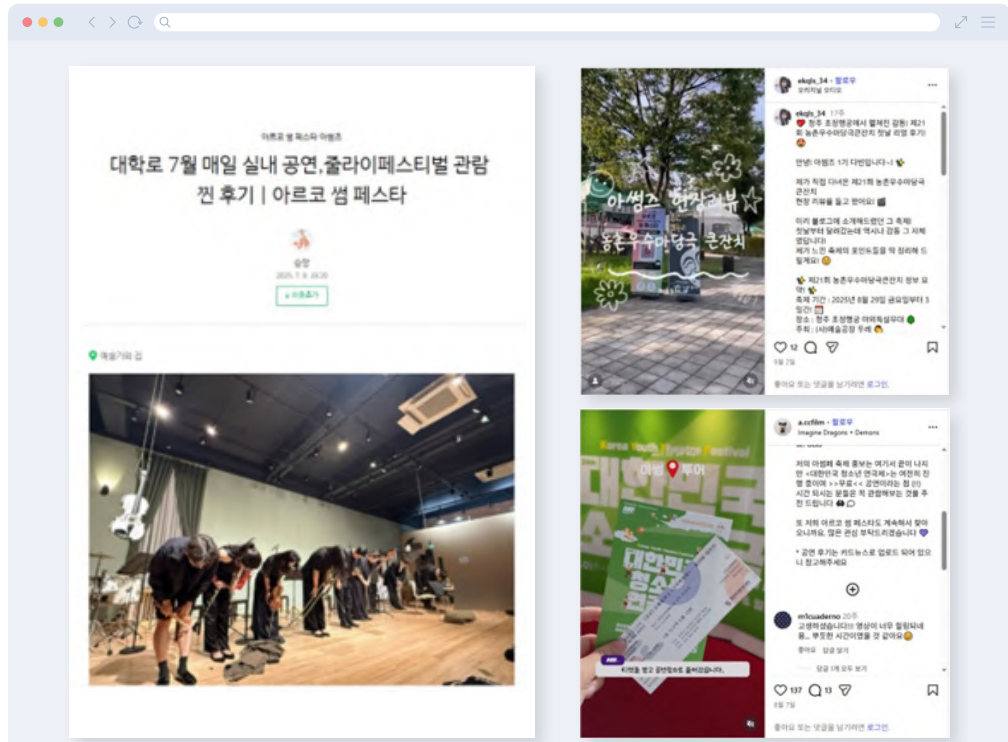
○ 콘텐츠 제작: 총 336건

○ 우수 서포터즈 콘텐츠 목록

서포터즈명	콘텐츠 제목	대상 축제	게시 채널
미닛	연극제 보러 2시간 걸려 인천 갈 수도 있지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네트워킹 페스티벌 리뷰	대한민국연극제	유튜브
a.ccfilm	아썸 투어	밀양 편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밀양	인스타그램
최피디의 다큐	부산바다와 만난 발레 | 2025 부산발레페스티벌 현장 | 댄스웨이브·발레워크숍	부산발레페스티벌	유튜브
ekqls_34	청주 초정행궁에서 펼쳐진 감동! 제21회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첫날 리얼 후기!	농촌우수마당극큰잔치	인스타그램
승짱	대학로 7월 매일 실내 공연, 줄라이 페스티벌 관람 찐 후기 | 아르코 썸 페스타	줄라이 페스티벌	블로그







○ 서포터즈 활동 사진



7. 옥외 광고

○ 광고 목록

구분	내용	세부내용	기간	비고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외벽	앞마당 13.1*4.7M	7. 1(화) ~ 8. 31.(일)	
	문화게시판	대학로 문화게시판 상단(7군데) 광고면(4군데)	6. 16.(월) ~ 8. 17.(일) 9주	
	가로등배너	7월 : 창경궁로 8월 : 대학로 월별 13조 게첩	7. 1.(화) ~ 8. 31.(일) 2개월	
	지하철 와이드칼라	혜화역 4번 출구 와이드칼라	7. 1.(화) ~ 8. 31.(일) 2개월	
서울 전역	지하철 액자 광고	지하철 2,3,4,7호선 총 400개	6. 30.(월) ~ 8. 22.(금) 2개월	
전국	GS편의점 영상광고	전국 3천 대 이상	6. 30.(월) ~ 7. 29.(화) 1개월	

○ 게첩 사진




















ARKO SUM FESTA
JAWS






아르코꿈밭극장 2025.


제8회
아츠인탱크
무용축제
in Korea
HERE GOES




GEORGIA




GS25
아르코 썸 페스타
ARKO SUM FESTA
프리뷰 위크

아르코 썸 페스타

함께하는 사람들

총괄PM
송승은

조직위
위원 김긍수, 서승미, 서진, 성기숙, 손정우, 왕치선, 윤중강, 이훈경

축제사무국
주식회사 아이디어랩 : 김도연 대표, 김미영 실장, 유지인 선임PD, 이규리 PD, 김유경 PD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팀 : 정창호 팀장, 조준형 과장, 황원우 과장, 이지윤 주임, 이지혜 주임

사무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지원본부장 류재수, 극장장 강량원
극장운영팀, 무대예술팀, 경영지원팀

참여단체 (가나다 순)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주)극단민들레, 더하우스콘서트, (사)대한무용협회, 사단법인 문화문,
문화발전소 열터, 부산발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사)세종솔로이스츠, 아이엔지댄스코리아, (사)예술공장 두레,
젊은음악인의 모임, (사)창무예술원,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텐스푼,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 (사)한국연극협회, (사)한국춤협회, (사) 한국현대무용협회

ARKO SUM FESTA

한국문화예술위원회